

100발100중이 만든 EBS 수능특강 분석서

2026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상)

정답 및 해설

PART 1 | 개념 학습

01 길

본문 010~01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화자는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여 갈 곳 없는 나그네 신세로 여겨지기 떠돌며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04 독백체인 '하오체'를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며 하소연하는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08 토속어와 고유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④ 4 일제 강점기에 삶의 터전인 고향을 상실하고 정처 없이 떠돌았던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 1 유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애와 탄식, 하소연하는 듯한 어조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마귀 가락가락', '갈래갈래 걸린 길'에서 동일한 음운이 반복되고 있다. ③ '기러기'와 '나'를 대조하여 나그네의 비애와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⑤ '열 십자 복판'은 화자가 방황하는 공간을, '길'은 우리 민족이 끊임없는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상징한다.

- 2 '가마귀'의 울음소리는 불길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유랑하는 화자의 불안하고 암담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기러기'는 자유로운 공간인 '공중'에서 날고 있는 대상으로 갈 곳 없는 화자의 상황과 상반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화자의 부러움이 투영된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가마귀'는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② '기러기'는 갈 곳 몰라 하는 화자와 달리 공중에서 잘 가는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으로써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③ '가마귀'는 화자가 불안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기러기'는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이다. ⑤ '가마귀'가 화자의 처지를 통해 암울한 시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러기'는 화자와 달리 자유롭게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로 화자의 절망적인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할 뿐, 다가올 새 시대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 3 <보기>는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가 '길'과 연결된 다양한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열 십자 복판'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되돌아가고 싶은 원점 또는 화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그네 집'은 길 위에서 방황하는 화자가 '어제도' 머물렀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목적지를 잃고 지속적으로 유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고 떠도는 화자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③ '정주 객산'은 화자의 고향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화자는 어떤 곳도 자신에게 오라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자의 슬픔은 심화되고 있다. ⑤ '걸린 길'은 방황성을 상실한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자의 모습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2

고을사 저 꽃이여/피골피골우는 소리에/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본문 014~01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꽃이 반 정도 시든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들어 가는 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04 '춘풍'을 통해 계절적 배경은 제시되었으나, 애상적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 05 시적 대상인 반쯤 시든 꽃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 08 피꼬리의 울음이나 어린 손자가 '꽃놀이'를 하는 것에서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9 식량이 떨어지기 쉬운 봄철에 술을 담가 거르는 것으로 볼 때, '술'은 화자의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로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다.
- 10 아내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다.
- 14 문제 상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15 화자인 농부가 청자인 '왕손 공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왕손 공자들의 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 16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에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지배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17 「피골피골우는 소리에」에서는 가족들의 일상적 모습을 나열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18 「고을사 저 꽃이여」의 '반반 여인', 「춘풍에 향기 쫓는」에서 알 수 있다.
- 19 「고을사 저 꽃이여」의 '웃고 맞이하노라'에서 알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③ 2 ③ 3 ⑤ 4 ③

- 1 「피골피골우는 소리에」에서는 '지어미'가 화자에게 건네는 말을 활용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에서는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피골피골우는 소리에」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가족들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예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의 화자는 시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② 세 작품 모두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 나타났으나, 직설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피골피골우는 소리에」는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에서는 이와 같은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았다. ⑤ 「고을사 저 꽃이여」에는 대조에 의한 전개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 2 시들어 가는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화자는 자연물인 '꽃'을 예찬하고 있으나 자연에 귀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의 곁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화자의 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3 화자의 감정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중장에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다. ② 피꼬리 우는 소리 때문에 낮잠을 깬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③ '피꿀피꿀'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나타내고, 동시에 '봄'이라는 계절감도 드러내고 있다. ④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가족들을 관찰하고 있다.

4 1연과 2연 모두 대조에 의한 전개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청자인 '왕손 공자들'에게 농부들을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라 만'에서 알 수 있다. ④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푸룻푸룻'을 통해 관리들이 수탈하고자 하는 '햇곡식'을 나타내고 있다.

03 징 소리

본문 018~02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칠복이가 결국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 04 풍자적 어조로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지 않다.
- 09 기상의 변화는 칠복의 불행과 관련이 있지만, 기상의 변화가 칠복의 심리 변화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 13 칠복을 버스에 태워 보낸 후 들리는 징 소리는 칠복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죄책감을 의미한다.
- 14 칠복은 아내를 찾고자 고향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을 향했다.
- 15 사정조로 부락하는 모습이나, 버스가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을 통해 강촌 영감 또한 칠복을 내쫓는 것이 편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②

- 1 징을 치고 난 후 호수와 댐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칠복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 간의 갈등은 '징'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 작품에서 결국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난다. ② 공간의 이동은 있으나 이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③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한다. ⑤ 현재와 과거가 교차 서술되고 있지 않다.
- 2 칠복이 고향 상실에 대한 원인을 댐에 돌리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의지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주역 속 고향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징을 치고 정신을 차린 후 댐만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고 인식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어둠 속 어디선가 칠복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④ '징 소리'의 환청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울려 퍼지고 불구가 칠복을 떠올리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댐에서 징을 치는 행위로 인해 칠복이 쫓겨난 것이므로 적절하다.
- 3 강촌 영감을 산업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칠복과 완전히 대비된 삶을 산다고 보기도 어렵다. 강촌 영감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업화의 논리에 편입된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댐은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마을이 수몰되어 공동체가 파괴된 현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가는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칠복과 마을 사람들은 실향민으로서 아픔이 있다. 그러나 칠복은 징을 치는 것으로 소극적이거나 현실에 반항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현실에 순응하여 살아간다. ④ 결국 칠복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전통 사회의 연대 의식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임진록」 전체의 측면을 본다면 다양한 인물의 활약상을 나열식으로 전개했다고 볼 수 있으나, 본문에 수록된 부분에서는 ‘김응서’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4 말하기와 보여주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대화 위주의 전개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 08 적장인 ‘종일’의 비범한 면모가 제시되어 있다.
- 12 ‘기생’이 휘장의 방울을 숨으로 막자 ‘응서’가 들어갔다.
- 13 ‘응서’가 전쟁터에서 끝까지 ‘기생’을 책임지려고 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닌 연민 때문이다.
- 14 평양성의 관문에는 수문군 십여 인이 잠들어 있었다.

나신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④ 4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서술하여 패전으로 인한 수모를 정신적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 1 ‘도사’가 복성화차와 호리병으로 종일의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초현실적 인물의 전기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배경 묘사로 인물의 성격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시선의 서술로 볼 수 없다. ④ 인물의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응서의 비범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원익’은 설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국세가 위태하니 ‘효’보다는 ‘충’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응서’는 ‘기생’에게 ‘조선 사람’이라는 출신을 언급하며 적장의 동정을 자신에게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응서’는 재주도 없고 부친이 상종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④ ‘한 군사’는 ‘응서’가 범을 물리친 일화를 토대로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⑤ ‘기생’은 본인이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올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원익’이 싸움에서 대패하고 도망가는 부분만으로는 상황을 오판한 집권층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도사’가 도술을 부리는 것에서 비현실적 사건 전개가 나타난다. ② 실제 역사와 달리 승리를 거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식이 나타난다. ③ ‘응서’가 맨손으로 범을 잡았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⑤ 상상력을 발휘하여 꾸며 낸 소설이지만, 실존 인물 및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최영경은 질문의 반복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정철을 비판하고 있다.
- 05 이산해는 내용이 아닌 형식을 문제 삼고 있다.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에서 알 수 있다.
- 06 이산해와 정철은 당파 싸움의 당사자로 이산해를 ‘선’으로 볼 수 없다.
- 08 희곡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10 정철이 최영경을 상장군으로 칭한 것은 조롱하기 위함이다.
- 14 ‘대체 길삼봉이 어떤 자이길래’에서 왕은 길삼봉의 실체를 알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5 정철은 최영경이 죽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나신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④

- 1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각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시문에 인물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② 시대를 상징하는 소재는 쓰이지 않았다. ③ 주로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은 ‘희곡’으로 시공간적 제약이 극복되지 않았다. ⑤ 대사를 현재형으로 진술하고 있다.
- 2 ‘길삼봉’이라는 이름은 권력자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길삼봉’은 작품 내에 실재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상 인물이므로 왕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지막 장면에서 선조가 웃는 것으로 보아 왕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작품 내에서 가상의 인물로 존재한다. ③ ‘최영경’은 정철의 의심으로 모함을 받은 것이지, 길삼봉이 아니다. ④ ‘길삼봉’은 당쟁 및 통치를 유지하는 정치로 기능하고 있다.
- 3 이 글에서 정철은 최영경이 길삼봉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력한 인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최영경’이 길삼봉이라고 확신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대간들은 정철을 탄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산해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② 길삼봉에 관한 진술이 상충하는 사례가 나타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 사실상 없는 상황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③ <보기>를 통해 선조가 신하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길삼봉’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정철이 거의 동인만을 대상으로 수사와 재판을 하였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3 밤나무는 글쓴이에게 관찰의 대상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04 윤 상군의 삶과 밤나무의 생장은 닮은 점이 있다.
- 05 글쓴이가 직접 밤나무를 길렀는지는 알 수 없다.
- 07 글쓴이와 인물이 묻고 대답하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12 윤 상군은 서론이 넘어 과거에 합격했으며, 마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 13 밤나무의 꽃이 무성하게 핀 것처럼 윤 상군도 등용 후에는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 15 '나'는 늦더라도 충분히 성취하는 윤 상군의 대기만성의 삶을 예찬하고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 2 ㉡ 3 ㉢

- 1 이 글은 밤나무의 특성과 인물의 삶을 유추적으로 연결하여 늦더라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삶의 이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물인 '밤나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② 처음에는 늦되지만 성취 후에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바람직한 삶의 이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회상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환상적인 분위기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 2 ㉠에서 윤 상군은 밤나무의 미적, 실용적 가치로 인해 밤나무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밤나무는 윤 상군의 삶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③ ㉠은 윤 상군이 늦게 성취하였다는 의미로, 늦게 성취한 데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밤나무의 '꽃'과 '열매'는 벼슬길에 올라 출세한 것을 의미한다. ⑤ 목포를 바라보며 정진하면 늦더라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삶의 이치를 의미한다.
- 3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은 윤 상군이 등용은 늦게 되었지만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내용과 연결할 수 있다. 벼슬에 오른 후에 직무에 충실히 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밤나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윤 상군이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하여 집을 구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②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늦었다고 할 정도로 늦게 벼슬에 나아가 윤 상군의 삶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④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것'은 등용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일단 등용이 되고 나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이나 자리를 옮겨 높은 지위에 올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던 윤 상군의 삶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⑤ '밤나무의 성장함'은 윤 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밤을 거두어 간직하는 것'은 윤 상군이 은퇴하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도 않다.
- 05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06 '검은 문', '푸르른 바다'에서 색채어가 사용되었으나 '검은 문'은 고단한 현실에 놓인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고, '푸르른 바다'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창밖으로 바라보던 장면을 떠올린 것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08 '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로 '하나씩의 별'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희망을 상징할 뿐, 이를 통해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신 대비 문제

1 ㉠ 2 ㉡ 3 ㉣ 4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민족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두만강', '자무스' 등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유랑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② '검은 문'은 고단한 현실에 놓인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며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푸르른 바다'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창밖으로 바라보던 장면을 떠올린 것으로 서러운 정서와 연결되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 ③ 1연의 마지막 구절이 4연의 마지막 구절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명사 '별'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2 화자는 '내사 서울이 그리워 /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와 같이 독백의 형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가 느끼는 갈등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 드러나는 화자의 개인적 상황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 상황이 사회적 상황으로 확대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시에서 묘사된 현실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화자가 1연부터 '하나씩의 별'을 언급하며 희망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푸르른 ~ 골짜기 골짜기'를 통해 부분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 3 화자는 유랑민들이 귀향하는 상황과 자신이 고향이 아닌 서울로 가는 상황을 통해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전환기 현실의 불안감을 복합적인 정서로 드러내고 있다. 3연의 '헐벗은 채 돌아오는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를 고려할 때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가 회한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제대로 된 객실에 타지 못하고 위험한 지붕 위에 있어야 하는 유랑민들의 극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화물 열차의 지붕 위'는 해방의 공간이자 비참한 현실의 공간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② 각자 드러누워 '한결같이', '하나씩의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화자와 유랑민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어두운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통해 희망을 엿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남도 사람들이 '힘한 땅에서 힘한 번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나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험벗은 채 돌아오는' 것은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과거의 '이민 열차'는 고향을 떠날 때의 설움을, 현재의 '화물 열차'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열차로 대비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08 카인의 후에

본문 041~04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 작품은 시나리오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짐작해야 한다.
- 07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 11 오작녀는 '훈'에 대한 사랑으로 '훈'이 재산을 몰수당하는 상황에 반대하는 것이지, 토지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 13 '도섭 영감'은 사회주의에 대한 동조보다는 자기 생존 본능으로 토지 개혁의 행동대원으로 나서고 있다.
- 16 오작녀의 발언에 놀라는 '훈'의 반응에서 오작녀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④

- 1 도섭 영감은 오작녀가 열병을 앓았음을 이유로 개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개털'은 오작녀가 박훈의 재산을 소유하길 바란다고 착각하고 있다. ② 오작녀는 박훈을 도와주고자 자발적 의지로 농민 대회에 참여했다. ③ '개털'의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소작인에게 혜택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공평하게 분배될지는 알 수 없다. ⑤ 집 열쇠를 달라는 말에 잠자코 오작녀에게 열쇠를 넘기는 박훈의 모습에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오작녀'와 '훈'은 결혼을 한 적이 없으며 '오작녀'의 거짓말에 '훈'은 놀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훈'과 같이 있고 싶다는 의사를 눈짓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② '오작녀'를 잡지 않고 눈만 감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오작녀'를 해방하려는 '당'의 행위를 '허튼 소리'로 치부하는 데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 있다. ④ 한 말 나서며 '훈'의 집 열쇠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3 '오작녀'가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고자 함이지, 농민 대회에 불복하고 민주 혁명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개털'은 충실한 공산당원으로 근거 없이 '훈'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한다. ② '오작녀'는 '훈'을 사랑하여 그를 감싼다. 따라서 이기적 인물 유형인 '카인의 후에'와는 거리가 있다. ③ '개털'은 '훈'의 재산 몰수가 '농민 대회'에서 집단에 의해 결정된 의견임을 강조하여 자신의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⑤ 모든 사람이 '오작녀'와 '훈'이 부부가 되었다는 말에 놀라 '훈'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을 멈추고 옹성거리는 것으로 보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작중 서술자가 꺾녀를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인 ‘그’가 관찰한 것이다.
- 06 ‘그’의 내부 이야기에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개입함으로써 서술자의 태도에 객관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 08 외부 이야기에서 작중 서술자인 ‘나’가 ‘그’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11 ‘그’와 ‘꺾녀’는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꺾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유곽에 팔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이다.
- 14 ‘그’는 고향에 들렀다가 돈벌이를 찾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③ 4 ‘조선의 얼굴’은 ‘그’의 얼굴을 의미하는데, ‘그’의 얼굴을 통해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과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모습을 보여 준다.

- 1 내부 이야기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외부 이야기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의 개입으로 인해 사건을 바라보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액자식 구성이 나타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입체적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⑤ 현실 고발적 성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저항 의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2 ‘꺾녀’의 가족은 딸을 유곽에 팔아먹은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 이웃의 손가락질 때문에 이주했다.
오답 해설 ①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③ 정종만 나눠 마시고 헤어진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가을이 되어 얻게 되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꺾녀’의 외양 묘사를 통해 비참했던 민중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이 글의 고향은 황폐화되었으나, <보기>의 고향은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현재 고향의 모습에 쓸쓸함을 느끼며 과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②, ⑤ 이 글의 화자는 고향이 황폐화되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자연은 변함이 없으나, 변해 버린 고향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④ <보기>는 청각·시각·미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의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 05 전투 장면 자체가 묘사된 것은 아니다.
- 07 의인화된 자연물은 찾아볼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① 4 ⑥: 물결, ⑤: 모래 5 ③ 6 ⑤ 7 ‘밤’이라는 시간은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자의 고뇌를 심화시킨다.

- 1 변치 않는 ‘잣나무’와 마음이 변해 버린 임금을 대비하여 원망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계절(가을, 겨울)이 언급되지만 이는 임금의 변심을 나타내기 위함이 지.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지는 않는다.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명령형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공감각적 심상은 찾아볼 수 없다.
- 2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에 질문의 형식이 나타나지만, 이는 국가의 태평을 염원하는 것일 뿐,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고뇌에 잠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바람이 불어오는 ‘한바다’나, 홀로 앉아 있는 ‘높은 누각’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전란 속에서 고민하는 화자의 비정미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쓸쓸하고 깊은 사색을 심화시키며, 잠 못 이루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화자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알게 되는 화자의 ‘이름’을 대조하여, 타인의 시기와 모함에도 굴하지 않는 화자의 총질을 드러내고 있다.
- 3 ㉠은 임금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원망을 환기하고, ㉡은 화자의 고독과 우국충정의 번민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② ㉠과 ㉡은 결핍을 채워 주는 긍정적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나 번민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소재로 쓰였다. ③ ㉠과 ㉡ 모두 인간의 유한함을 환기하는 소재가 아니다. ④ ㉠은 임금의 가변성과 대비되는 불변성을 지니지만, ㉡은 유동적인 자연 현상일 뿐, 도덕적 지향점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⑤ ㉠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지만 이는 시련 극복이 아닌 원망으로 이어지며, ㉡은 극복의 의지보다는 고통스러운 고뇌를 부각한다.
- 5 「원가」에서는 ‘모래’에, <보기>에서는 ‘접동새’에 화자를 비유하여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원가」에서는 ‘-여’, <보기>에서는 ‘-어라’와 같은 영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볼 수 없으나, 「원가」에서는 ‘가을’, ‘겨울’이 제시되고 있다. ④ 「원가」와 달

리 <보기>에서는 화자를 직접 지칭하는 ‘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솔프도다’라는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㉔ <보기>는 ‘못사람들’의 모함이라는 문제의 원인이 직접 드러나고 있다.

6 ‘변방의 근심을 평정’한 뒤에 ‘귀거래사’를 읊겠다는 것은 개인의 안식보다 나라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투철한 책임감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바라는 ‘태평’은 신선의 세계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실제 현실이며, 이를 허구적 공간으로 보는 것은 우국충정의 본질과 어긋난다. ② 화자에게 ‘업적’은 외부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구어 낸 총결의 산물이므로, 이를 내면적 가치와 대립(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③ 화자는 전쟁의 평정을 꿈꾸며 적극적으로 고뇌하고 있으며, 고사 인용은 책임 완수 후의 ‘무욕(욕심 없음)’을 보여 주는 장치이지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다. ④ 자연으로의 회귀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비겁한 타협이 아니라, 공을 세운 뒤 명예를 탐하지 않고 물러나려는 고결한 선비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02 만전춘별사/내 영혼 술에 섞여/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본문 060~06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연과 연 사이에 고려 가요의 특징인 후렴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 07 화자는 독백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 08 화자는 ‘날 잊고 남 향한 마음’을 먹고 있는 임을 원망하고 있다.
- 13 중장에서 장사는 역사적 인물도 이별을 막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㉔ 2 ㉔ 3 ㉔ 4 오리 5 ㉔ 6 ㉔ 7 이별 나는 구멍은 때울 수 없다.

1 「내 영혼 술에 섞여」의 화자는 독백을 통해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는 임의 마음을 태우고 싶다며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의 화자는 장사와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만전춘별사」에는 ‘얼음 위에 덧입지리’, ‘경경 고침상’과 같이 공간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가 드러나 있지만, 공간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내 영혼 술에 섞여」의 화자는 독백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에는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만전춘별사」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에는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되지 않았다.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 것은 「만전춘별사」의 ‘도화’이다.

2 「만전춘별사」에는 상투적인 한자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2연의 ‘도화’는 임이 부재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사물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③ 1연과 3연에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1연에서 얼음 위에 덧입지리를 퍼서 얼어 죽을망정 임과 함께하고 싶다는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3 「내 영혼 술에 섞여」는 추상적 대상인 ‘영혼’과 ‘마음’을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도 추상적 시간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내 영혼 술에 섞여」와 <보기>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내 영혼 술에 섞여」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 않다. ④ 「내 영혼 술에 섞여」와 <보기> 모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화자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 않다. ⑤ <보기>에는 ‘동짓달’이라는 계절이 드러나 있으나, 「내 영혼 술에 섞여」에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내 영혼 술에 섞여」에는 다른 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지만, <보기>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

4 이별 후 돌아오지 않는 임을 ‘오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5 ㄱ. ㉔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는 ‘오늘 밤’이 빠르게 흐른다고 인식하여 그 시간을 지연하고 싶어 한다.

ㄷ. ㉔에서 화자가 ‘열두 때’, ‘서른 날’의 시간을 길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임이 없기 때문이다.

ㄹ. ㉔에서 화자는 임이 부재하기 때문에 꽃 피고 새 잎 나는 좋은 시절인 봄이지만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㉔은 화자가 자신이 아름답던 젊은 시절이 빨리 지났다고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6 ㉔는 ‘이별 나는 구멍’을 때울 수 없다는 대답을 함으로써 임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㉔는 함께하고 싶은 임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괴로움을 심화시키는 사람이다. ② ㉔는 화자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화자에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다. ④, ⑤ ㉔는 화자에게 ‘이별 나는 구멍’을 때울 수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으로, 화자의 사랑을 지지하거나 화자의 심정에 공감하는 인물이 아니다.

7 이별 나는 구멍을 때울 수 있느냐고 묻는 화자의 물음에, 장사는 그러한 구멍(임과의 이별)은 때울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03 월곡답가

본문 067~07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화자는 새로운 인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옛사람이 지금의 내 벗이라 생각하고 있다.
- 05 ‘청송’과 ‘백운’에 감정을 이입하지는 않았다.
- 06 벗을 생각하며 꿈이라도 그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지, 꿈에서 벗을 만나 회포를 푸는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 08 ‘-노라’에서 영탄적 표현을 찾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벗에게 가지 못하고 마음만 오가는 안타까움이 부각되고 있다.
- 10 ‘-나가’, ‘-하리’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선계에 가고픈 바람이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② 4 ⑤ 5 ③ 6 꿈

- 1 <제7수>에서는 ‘피는 첩첩하고 구름은 잿았으니’에서 대구적 표현을 통해, 장애물에 가로막힌 벗과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과는 관련이 없으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③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⑤ <제10수>에서 청유형 문장은 찾아볼 수 없으며, ‘-나가’와 ‘-하리’에서 의문형 어미만 활용되고 있다.
- 2 ㉔은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기 위해 ‘벗’이 선택한 것이고, ㉔은 장애물로 인해 ‘고인’의 집터를 바라볼 수 없기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야기하는 자연물이다.
오답 해설 ① ㉔은 화자가 시적 대상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㉔은 시적 대상이 살고 있는 자연 속의 집을 의미할 뿐이다. ② 시적 대상을 향한 화자의 인식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③ ㉔은 현실을 떠나기 위해 ‘벗’이 선택한 것이며, ㉔을 ‘고인’이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㉔은 ‘벗’이 속세와 멀어지기 위해 선택한 것이므로, 속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3 ㉔는 화자를 바라보며 ‘꿈다’고 평가하는 ‘한 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한 분’을 ‘꿈다’고 화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세속적 가치보다 고결한 정신을 중시하는 화자의 가치관이 ‘옛사람(월곡)’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 있다. ③ ‘꿈’은 현실적 제약(거리감)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벗에게 닿으려는 화자의 간절한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④ 꿈은 가지 못해도 마음만은 길을 알아 오락가락한다는 표현은 벗을 향한 지극한 그리움을 강조한 것이다. ⑤ 시적 대상이 있는 공간을 신선을 만날 수도 있는 선계에 인식하며, 벗을 신선과 만날 수 있는 고결한 존재로 예찬하고 있다.
- 4 ‘청학’을 타려는 행위는 속세를 떠나 선계(이상향)에 동참하려는 의지일 뿐, 정계에 다시 진출하여 세속적 뜻을 펼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청송'과 '백운'은 자연의 푸름과 깨끗함을 상징하며, 월곡이 추구하는 청빈하고 고결한 삶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외양만 중시하는 '분바른 각시님네'와 내면의 가치를 알아주는 월곡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고귀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③ 현실의 거리감을 극복할 수 없는 화자가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정신적으로나마 벗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월곡이 머무는 곳을 신선들이 사는 선계로 바라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와 탈속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5 <보기>에서는 '어이 허리오'에서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있지만, <제6수>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제6수>에서는 '달'을, <보기>에서는 '월(달)'과 '추풍', '납'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대상을 간접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두 작품 모두 부채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고 있다. ④ <보기>는 '추풍'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으며, 가을에 떨어지는 잎 소리를 임의 발자국 소리로 오해하며 슬퍼하는 화자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⑤ <제6수>는 '달이 밝은 제는 ~ 경을 보고 그리노라'에서 대구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벗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04 두류산 양단수를/요일월 순간곤은/대장부공 이루고

본문 073~07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찾아볼 수 없다.
- 03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 07 계절의 순환은 언급되지 않았다.
- 09 자연 속에서의 삶은 제시되어 있으나, 현실의 고통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① 4 ② 5 ④ 6 ④

1 도화가 맑은 물에 떠 있는 풍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봄이라는 계절은 배경일 뿐, 계절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② 유사한 어구의 반복은 찾아볼 수 없다. ③ 현실을 아쉬워하는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과거를 반성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2 「요일월 순간곤은」은 '달랐는고'에서 의문형 어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은 변해 버린 인간 세상에 대한 한탄이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두 작품 모두 '노라'라는 영탄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② '두류산 양단수'를, '도화', '두류산'이라는 자연물을, 「요일월 순간곤은」은 '일월'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 ③ '아희야'를 통해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요일월 순간곤은」에서는 '일월', '건곤'과 '세상 인사'의 대조를 확인할 수 있다.

3 오랜 세월 동안 항상 끈계 서 있는 '바위'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예찬하고 있다. 예찬적 태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두류산 양단수」의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백이와 숙제처럼 고사리를 뜯어 먹는 것보다 죽더라도 고사리조차 캐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폐위된 왕(단종)을 유배지까지 호송한 뒤에 돌아오며 느끼는 슬픈 마음을 물에 감정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입을 향한 변화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아광명월'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⑤ 천리마를 잡아서 아무리 살찌게 먹인들 본성이 역세고 사나워 길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본성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천리마를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4 공간적 배경은 '오백년 도움지'라고 언급한 <보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요일월 순간곤은」에는 '일월'이, <보기>에는 '산천'이 활용되고 있다. ③ 「요일월 순간곤은」에서는 '슬퍼하노라'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언급되고 있다. ④ <보기>의 중장에서는 대구법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어즈버'에서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5 '만권 서책'은 공을 이룬 후 전원에서 누리는 정신적 풍류를 의미할 뿐, 관직에 다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나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공을 이룬 뒤’라는 표현은 화자의 현재 삶이 성공적인 사회적 성취 이후에 얻은 정당한 보상임을 전제로 한다. ② ‘입천’은 화자가 실제로 머물며 만족하는 현실적 귀의처로, 속세의 화려함과 대비되며 화자의 안분지족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③ ‘술’과 ‘거문고’는 사대부의 풍류를 상징하는 소재로,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를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⑤ ‘강구연월’은 태평성대를 의미하며, 그 속에 누워 있다는 표현은 현재의 삶에 대한 화자의 깊은 자족감을 형상화한 것이다.

6 ‘도화’는 두류산 양단수의 뛰어난 정치를 ‘무릉도원’이라는 이상적 세계로 확장하여 인식하게 한다.

오답 해설 ① ‘도화’는 현실 공간을 이상적으로 인식한 것이지만, ‘입천’은 화자가 실제로 머물며 만족하는 현실 공간이므로 ‘도탈할 수 없는 이상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② ‘도화’와 ‘입천’은 반성보다는 감탄과 만족의 정서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③ ‘도화’와 ‘입천’ 모두 자연의 순환 질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⑤ ‘입천’은 바른 삶의 의지를 형상화하기보다는 공을 이룬 뒤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05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연못에 비오는 소리, 임오란 회양금성 오리나무 뒤고

본문 079~08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겉모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본질(절개)은 변하지 않았음을 예찬하고 있다.
- 05 ‘비 오는 소리’는 잠을 깨게 하여 꿈에서 입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 08 임과의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날 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 10 ‘바람비 눈서리’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므로 긍정적 매개체라 할 수 없다. 화자는 ‘바람비 눈서리’에도 불구하고 입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④ 4 ⑤ 5 ③ 6 ⑥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는 ‘만중운산’으로, 두 시어는 모두 입과 화자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1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의 「눈 속에 푸를쓰냐」, 「연못에 비 오는 소리」의 「깨뚫던고」에서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은 지조에 대한 확신을, 「연못에 비 오는 소리」는 꿈에서 깬 허탈함과 아쉬움을 강조하기 위해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의 대나무는 예찬의 대상일 뿐 슬픔이 이입된 것이 아니다. ③ 음성 상징어는 「임오란 회양금성 오리나무 뒤고」의 주요 특징이며, 「눈 맞아 휘어진 대를」과 「연못에 비 오는 소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은 「눈」과 「대나무」의 대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연못에 비 오는 소리」는 소재 간의 대조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 아니다. ⑤ 두 작품 모두 시선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변화보다는 화자의 심리 묘사에 집중하고 있다.

2 ㉠은 그리운 입을 만나려는 시도에 해당하며, ㉡은 아무리 내려도 침녕쿨인 화자가 절대로 입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동원된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입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이므로,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은 입과 화자 사이에 가해지는 시련으로, 극복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화자의 좌절을 야기하는 대상은 ㉠이고, 입과의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은 ㉡이다. ③ ㉠은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닌 외부적 시련에 해당한다. ④ ㉠을 통해 입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은 입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에도 변치 않겠다는 사랑의 다짐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3 「눈 속에 푸를쓰냐」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이성계 등의 꾀박 속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은 작가의 태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지조를 지닌 대상을 예찬하는 것일 뿐, 새 왕조에 협력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초장의 「눈」은 「대」를 휘어지게 하는 시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작가에게 「새로운 왕조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세력」의 압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작가 원천석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치약산에 은거」하였으므로 그의 행동은 「휘어진」이라는 시어와 대응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작가 원천석에게 절개는 결국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을 지키는 것이기에 적절한 설명이다. ⑤ 종장의 「너」는 「세한고절」하는 존재로 결국 작가의 충직한 태도를 의미한다.

4 자연물을 통해 대상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에서 ‘납저미’는 입을 놓치지 않으려는 화자의 절박하고 강렬한 사랑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연못에 비 오는 소리」에서 ‘비’는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 순수한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 ② 「연못에 비 오는 소리」에서 ‘구슬’은 화자의 슬픈 눈물을 비유한 것일 뿐, 유교적 덕목과는 무관하다. ③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에서 ‘오리나무’는 입을 비유한 대상이지, 자연 귀의를 위한 친화적 대상이 아니다. ④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에서 ‘취녕굴’은 입과 결합하려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유교적 충성심을 노래하는 관습적 소재가 아니다.

5 <보기>에서는 ‘무쇠 성 → 성 안에 담 → 담안에 집’ 등으로 앞 구절이 뒤로 이어지는 연쇄적 표현을 통해 오지 않는 입을 향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는 입과 함께하고픈 애정을 드러낸 것일 뿐, 현재 입이 부재하는 상황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보기>는 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것이지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며,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에서도 자책의 정서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열거는 두 작품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에서는 입을 만나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에서는 ‘칭칭’, ‘휘휘’ 등의 음성 상징어를, <보기>에서는 ‘수기수기’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06 면양정가

본문 085~09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이 글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08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09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도 임금의 은혜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유교적 충(忠)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10 정자는 무등산에서 뻗어 나온 제월봉 안에 지어진 것이다.
- 11 이 글에서 ‘인간 세상’은 ‘이 산(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자연 속에 사는 것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14 화자는 자신의 삶이 이태백의 삶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 15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는 자연을 감상하느라 지팡이가 무디어질 정도로 걸어 다녔다는 것의 과장적 표현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① 3 ① 4 ④ 5 ② 6 ① 7 ②

1 이 글에는 비유와 상징, 직유법, 의인법, 활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연쇄적 표현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이태백’과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녹양에 우는 피꼬리’,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을다가 휘파람 불다가’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③ ‘내대는 듯 따르는 듯 밭밧으로 흐르는 듯’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⑤ ‘연하’, ‘산림’, ‘녹양’, ‘피꼬리’, ‘녹음’, ‘윈서리’, ‘금수’, ‘황운’, ‘빙설’ 등 계절감을 환기하는 자연물을 통해 면양정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2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펼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엮었는데’를 통해 면양정은 무등산의 끝자락에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지, 면양정을 떠나 무등산의 모습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황운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쳤는가’를 통해 가을에 곡식이 누렇게 익은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정면을 떠올릴 수 있다. ③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를 통해 지팡이를 짚으며 이동하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정면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밧는 듯’, ‘가운데 굽이’의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엮었는데’를 통해 무등산에서 뻗어 나온 일곱 개의 산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산에 면양정이 세워진 정면을 떠올릴 수 있다. ⑤ ‘가마를 굽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 오며 가며 하는 때에 / 녹양에 우는 피꼬리 교태 거워하는구나’를 통해 여름에 가마를 타고 피꼬리 소리가 들리는 산길을 이동하는 정면을 떠올릴 수 있다.

3 ①은 면양정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세속에 대한 차단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㉔ 어부의 피리 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달을 따라 불며 간다고 표현한 것은, 청각적 경험을 통해 떠올린 장면을 묘사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㉓ ‘아침’과 ‘저녁’, ‘오늘’과 ‘내일’ 등 시간을 표현한 시어를 대응시켜 자연을 감상하느라 바쁜 현재 상황이 이후로도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㉔ 당나라 시인 이백과 비교하며 ‘강산풍월’을 거느리고 ‘호탕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㉕ ‘역군은이셨다’라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의 사상을 드러냄으로써 사대부 가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4 화자는 가마를 타고 가면서 듣는 피피리 소리를 교태롭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㉖는 봄을 즐기는 화자의 감정이 자연물인 ‘피피리’에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때마침 익은 술을 벗과 함께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며 극도의 흥취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㉔는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㉔는 추상적 사물을 구체화하여 드러낸 대상이 아니라, 면양정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㉖는 화자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 아니다. ② ㉔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의 광활함을 부각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㉖는 자연을 즐기기 위해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듣는 소리로서 동향적 분위기와는 관계가 없다. ③ ㉔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대상이 아니며, ㉖는 적막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⑤ ㉖를 통해 화자가 삶의 목표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며, ㉔를 통해 화자가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연상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5 [A]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황운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쳤는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가을 들뜬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경궁요대’와 ‘옥해운산’이라는 백색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으로 덮인 겨울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금수’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단풍이 든 가을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송경이로다’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가을 산의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 1>에서는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인 강호가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이셨다’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ㄱ).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를 통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ㄴ).

오답 해설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를 통해 자연 속의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ㄷ). 궁핍한 생활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ㄹ).

7 <보기>에서 ‘면양정’은 작가가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늪은 용’은 제월봉의 형세를 표현한 것인데, 선잠에서 막 깨어난 ‘늪은 용’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한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늪은 용이 선잠에서 막 깨어났다는 것은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펼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늪은 들판’에서 무슨 ‘집착’을 한다는 것은 작가의 이상이 높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③ ‘누 달개 밟았는 듯’하다는 표현은 비상(飛上)하려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주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것은 높고 낮은 다양한 형세의 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07 사친가

본문 092~09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앞부분에서는 자연의 풍경을,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
- 07 2월령에서 화자는 한식을 즐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10 5월령에는 단오절의 세시풍속인 그네타기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화자가 부모님과 함께 그네를 탄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다.
- 11 이 글에는 장소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④ 4 ② 5 ④ 6 ① 7 일촌 간장 맺힌 설움 부모 생각뿐이로다

1 정월령에서 ‘소년들아’라고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만, 화자가 청자와 대화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개자추, 이영백, 적인결 등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이 작품은 월령체 형식으로 구성된 월령체 가사이다. ③ 각 절기의 절구에서 ‘슬프도다 우리 부모 ~ 모르시나’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각 절기의 앞 부분에서는 세시풍속과 관련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풍경을 제시한 후, 뒷부분에서는 절기를 즐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㉔은 부모님의 장수를 바랐던 화자의 소망이 좌절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가 지난날 불효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㉔은 정월 십오 일에 달구경하는 소년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효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② 부모님의 사랑을 ‘태산’과 ‘하해’에 빗대어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공산낙목 한 줄 흙’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를 통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적막함과 쓸쓸함을 추상적 심상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3 ‘애오생지가련하니 탄광음지여류로다’는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음을 탄식한다.’라는 의미로 세월의 흐름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다. 뒤에 이어지는 ‘슬프도다’로 미루어 보아 화자는 세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농구를 둘러메고 처처에 왕래하며’를 통해 봄을 맞이한 농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비 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 호랑나비 분분하여 옛빛을 지랑한다’에서 대규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산화는 붉은 비단이요 세류는 푸른 실이로다’에서 은유법과 대규법을 사용하여 봄날의 아름다움을 부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슬프도다 세월이여’를 통해 봄을 맞이한 상황과 부모님을 잃은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4 ‘대장부 살림이 이 아니 넉넉한가’에서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을 의미하는 ‘안빈낙도(安貧樂道)’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③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④ 불편한 삶에 몸을 낮히고 쓸개를 맞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5 ‘만사 인간 젊은 날에 소년행락 얼마하리’는 인간의 삶 중에서 젊은 시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젊은 날을 즐기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부모 봉양 생각하리’, ‘부모 생각뿐이로다’를 통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당대에 중시했던 가치관인 ‘효’와 ‘충’, ‘태평성대’ 등을 드러내고 있다. ③ ‘태행산 외로운 구름 보니 적인걸의 생각이라’는 태행산에 올라 멀리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⑤ ‘남린 북사 보리타작 방방곡곡 농부가로다’는 남북의 이웃집들이 보리타작하는 흥겨운 분위기를 드러낸 표현이다.

6 이 글에서는 ‘~ 우리 부모 모르시나’, ‘태평성대 이 아닌가’ 등에서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는 각 절기의 절구마다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유사한 구조의 시구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백구야 날지 마라 ~ 너와 놀자 찾았노라’에 물아일체의 경지가 드러나 있으나,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보기>에도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으나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과 <보기>에는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의 화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을 뿐, 부모님과 공유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보기> 역시 대상과 공유했던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다.

7 ‘일촌 간장 맺힌 설움 부모 생각뿐이로다’ 이전에서는 오월을 맞이한 풍경을 노래하고 있지만, ‘일촌 간장 맺힌 설움 부모 생각뿐이로다’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08 속사미인곡

본문 099~10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 글의 작가는 남성이지만, 화자를 버림받은 여성으로 설정하여 정서를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 05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지만, 유배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08 화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그 근본은 임을 위한 정성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 09 화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줄 주체는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④ 4 ② 5 ② 6 ⑤ 7 자신의 우직함과 망명됨은 모두 임금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추운 겨울’, ‘훈풍 도리화’, ‘국화’, ‘여름 석 달’ 등에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를 유배 생활에 처하게 한 정치적 반대파를 ‘못 여자’에, 임에게 사랑을 잃고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가을 부채’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장문부와 기대부의 고사를 활용하여 임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바람싸나’, ‘생각할까’, ‘상관하랴’ 등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참담한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다. ④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 지어’를 통해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의 총애를 받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 ㉔은 임을 향한 화자 자신의 진심을 임이 헤아려 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육지와 단절된 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유배 생활의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다. ② 화자는 집을 떠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빈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임이 모르실 리 없다는 화자의 생각을,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⑤ 화자는 옥류 높은 곳에서 밤마다 임을 모시는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3 ‘늘 위하여 단장할꼬’를 통해 임을 모실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ㄱ). 화자는 임을 위해 단장하려고 ‘옷’과 ‘치마’를 짓고 있다. 따라서 ‘옷’과 ‘치마’는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ㄴ). ‘늘 위하여 단장할꼬’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ㄴ. 임을 만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대립적인 시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4 화자는 현재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속에서 만나고 있으므로 ㉔에는 임을 만나고 싶은 현실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닭’은 화자의 꿈을 깨워, 꿈속에서 화자와 임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므로 ⑥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꿈속에서나마 입을 만나고 싶어 하므로 ③에는 입과 함께 했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만, ⑥에 입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는 꿈속에서 입을 만난 상황이므로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⑥를 통해 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④ ⑥에 반성적 인식이 담겨 있지 않으며, ⑥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꿈속에서 입을 만난 상황이므로 실제로 입을 만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⑥가 화자를 위로하는 것은 아니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일월 같은 우리 입이 저의 아니 굽어볼까'는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지닌 임금이 자신의 죄 없음과 충정의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작가의 믿음과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일상에 임금이 관심을 보여 준 것을 감사해하는 마음에서 작가가 그와 같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못 여지'는 작가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반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가는 반대파가 '질투하'여 유배된 일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작가는 자신이 겪는 시련의 근본은 '임 위한 정성', 즉 임금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④ '눌 위하여 단장할고'에서 '단장'은 입에 대한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작가의 연군지정을 뜻하며,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이 구절에서 작가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 아름답게 단장해도 보아 줄 입이 없는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연군지정이 임금에게 전해지기 힘든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비리노라'에는 유배된 자신의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므로, 자신의 상황이 임금에 의해 변화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심정이 담겨 있다.

6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는 한나라 진 황후가 황금을 주고 글을 사서 황제의 총애를 되찾았던 것처럼, 화자 또한 임의 마음을 돌려 다시 총애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황금을 얻어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실날 큰 명절에 숯국에 떡'과 '갓물에 잘인 배추'는 유배 생활의 고달픔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화자는 임금이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반드시 들겠다며 자신이 임금에게 쓸모 있는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③ 가을이 되면 부체가 필요없어지듯이 입에게 사랑과 총애를 잃고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광주리의 가을 부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우리 입 옥음은 귤가에 완연하고'에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7 화자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는 모두 임금을 위하는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09 몽금포 타령/어부별곡

본문 106~1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시적 대상을 인격화한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09 '풍월강산', '창산', '유수'라는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지만,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지는 않았다.
- 11 시각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감각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⑤ 3 ④ 4 ⑤ 5 ④ 6 ① 7 사랑하는(고기잡이를 나간/배 타고 떠난) 입이 돌아옴.

1 「어부별곡」 <제2수>를 통해 화자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던 지난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몽금포 타령」에서 화자가 성찰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어부별곡」의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를 통해, 화자가 당대의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몽금포 타령」에서 화자가 당대의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어부별곡」의 화자는 '풍월강산이 내 분'이라고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몽금포 타령」에서 화자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몽금포 타령」과 「어부별곡」 모두 현실적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몽금포 타령」에서 화자가 고기잡이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은 임이다. 한편 「어부별곡」에서 화자는 '위국 충심을 내어 벌 데 없'다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화자가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르는 것은 입이 갈 길은 멀지만 행진이 더딘 것 때문에 나온 바람으로, 배의 운항이 원활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봉죽을 받'기를 바라기 위해 화자가 성황님을 조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몽금포 타령」은 어업 노동으로 선후창으로 부른다. 따라서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입 만나 보겠네'는 여러 사람이 부르는 후렴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고기잡이 하러 떠난 배가 돌아오는 과정을 청각적 이미지로 활기차게 표현했다고 하였으므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는 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몽금포 타령」에 어항의 풍경도 드러냈다고 하였으므로,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와 '솔가지엔 두루미'는 어부들이 살아가는 장산곶의 풍경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쌍쌍이'로 있는 '흰 돛'과 달리 화자는 '외로운 사랑'으로 슬픔에 잠겨 있으므로, '흰 돛'의 모습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3 <제6수>의 '창산(파랗게 보이는 아득히 먼 산)'에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으나,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제3수>의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로', <제6수>의 '창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제2수>의 '물외의 풍월강산이 내 분인가 하노라', <제6수>의 '산수 간 일한 인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에서 영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제3수>의 '어부 무삼 그러리', <제6수>의 '그 아니 줄을쏘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살아가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2수>에서 세속적 삶을 의미하는 '시서', '명리'와, 자연 속에서의 삶을 드러내는 '풍월강산'을 대조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4 <제3수>의 ‘이런들 뉘 읊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는 ‘세상이 시비’하는 것으로, 읊고 그름을 따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강호’와 ‘속세’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명리’가 ‘망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세속적 가치인 ‘명리’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태평시세’는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태평성대가 ‘얼마나 멀었’는지 말하는 것은 당대 사회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와 연관 지어 볼 때, 화자는 당대의 사회를 혼란스럽다고 여긴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화자가 사회적 혼란으로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위국 충심’은 정계에 나가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위국 충심’을 ‘블데 없’다는 것은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뇌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④ ‘물의 풍월강산’은 자연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자연에서 지내는 것이 자신의 ‘분’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5 「몽금포 타령」에서의 ‘몽금포’는 고기잡이 배가 드나드는 항구이다. ‘외로운 사랑’, ‘가는 입’과 ‘입 만나 보겠네’, ‘을 때가 더 반갑습니다’를 통해 화자는 ‘몽금포’에서 입과 이별하기도 하고 입과 다시 만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입과의 이별과 재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은 자연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6 ㉢는 ‘그 아니 좋을쏘냐’를 통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는 ‘가고 아니 오는도다’를 통해 불변성을 지닌 ‘산’과 달리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는 무상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 ㉢ ㉣는 과거와의 단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 ㉥는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가변성을 지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유산가/백석정별곡

본문 112~11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어이 같꼬 슬피 운다’를 통해 기러기를 인격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슬프게 우는 주체는 ‘기러기’이므로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 09 ‘붉은 난간’, ‘돌길로 돌아가니’, ‘이끼 낀 돌에 앉아’를 통해 공간의 이동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10 화자의 현재의 삶은 드러나 있지만, 과거의 삶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

1 「유산가」의 ‘만산 흥륙’, ‘창송취죽’, ‘도화만발 점점홍’과 「백석정별곡」의 ‘백암에 섰는 단풍’, ‘늪은 술은 사시에 푸르렀다’ 등에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 각 자연물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작품에 모두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연물을 인건과 대비하여 무상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② 두 작품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지는 않고 있다. ③ 두 작품 모두 불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④ 두 작품 모두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감흥과 풍류는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자연을 통한 깨달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등에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구적 표현은 운율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② ‘첩첩, 우줄우줄’ 등의 의태어와 ‘꺄꺄, 살살, 으르렁’ 등의 의성어를 사용하여 불날의 정경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③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수정 열 드리운 듯’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 등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경관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 ‘어이 같꼬 슬피 운다’는 먼 곳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기러기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연을 직접 즐기지 못하는 청중에 대한 가객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산천경개 구경 가세’는 청유형 표현으로, 「유산가」를 부르는 가객이 청중들에게 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② ‘무릉도원, 연명오류’는 이상향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운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소부, 허유’와 관련된 해설을 볼 때,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이 골 물이 주르르 저 골 물이 살살’은 우리말로 표현한 것으로, 가객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로 부른 것은 한자를 잘 모르는 청중을 고려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4 <보기>에서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위’를 통해 ‘새’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백석정별곡」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도화행화는 석양리 ~ 그려 냈다'와 「백석정별곡」의 '철쭉과 살구꽃은 ~ 냇가에 푸르렀다'를 통해,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정자'에서 '시냇가'로의 공간 이동이 드러나 있고, 「백석정별곡」에서는 '난간'에서 '들길', 그리고 '이끼 낀 돌'로의 공간 이동이 드러나 있다. ③ <보기>의 '무릎이 가깝도다 저 산이 그것인고'와 「백석정별곡」의 '삼신산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를 통해, <보기>와 「백석정별곡」의 화자 모두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의 '이봐 이웃들이 산수 구경 가지구나'를 통해 이웃에게 자연 경치 구경을 가지고 제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백석정별곡」에서 특정 대상에게 자연 경치를 구경 가자는 제언을 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5 '삼춘가절'은 봄이 한창인 때를 나타낸 것으로, '기화요초', '유상앵비', '화간절무' 등은 '삼춘가절'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삼춘가절'에 자연 경치를 감상하면서 흥겨움을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기러기'는 무리와 함께 날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슬피 울고 있고,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러기가 화자에게 외로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 ③ '장송'은 바람에 흥겹게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이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장송'이 화자에게 지조를 깨닫게 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석양'은 화자가 들길로 나가는 시간적 배경에 해당하고,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석양'이 화자에게 자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⑤ '세사'는 화자가 거리감을 두려는 세상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때문에 화자가 자연에 묻혀 살게 되었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6 '유산가'에서 화자는 '벗님네(㉠)'에게 산천경개를 구경 가자고 권유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거리를 둔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리고 「백석정별곡」에서 '벗님네(㉣)'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비웃고 있으므로, 화자의 삶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벗님네'는 세속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거리를 두려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1 성패관천운/정처관군동

본문 119~12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이 글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 06** '그대'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

1 「성패관천운」의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쓰냐'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처관군동」의 '속맘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나 청자 역시 정도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성패관천운」의 '저울질을 삼가라'에서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처관군동」에서는 명령형 어조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성패관천운」과 「정처관군동」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성패관천운」에서 '아침과 저녁', '윗옷과 아래옷'을 대조하고 있고, 「정처관군동」에서 '끓는 물과 얼음장', '털옷과 삼베옷'을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물의 대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부각하지는 않고 있다. ⑤ 「성패관천운」과 「정처관군동」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일이 어찌다가 ~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를 통해, ㉣는 ㉡와 '일'이 비록 다르지만, '속맘'은 '정도'를 추구한다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자신과 ㉡가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는 ㉣가 '이치에 밝은 선비'라고 추켜세우며 높은 수준을 인정하고 있지만, ㉣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같다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의 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다. ② ㉡와 ㉣ 모두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 ④ ㉡가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한다고 여기지는 않고 있고, ㉣ 역시 ㉡를 모욕하지는 않고 있다. ⑤ '이치에 밝은 선비'를 통해 ㉢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는 상대방 역시 자신처럼 '정도'를 추구한다 여기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성패관천운」에서는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망정'이라는 과장적 상황을 활용하여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 수 없다는 생각, 즉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가는 모래 벼랑에 심은 구운 밤이 짝이 나거나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 위에 점을 붙여 꽃이 피어나는 과장적 상황을 활용하여 입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성패관천운」과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적 상황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성패관천운」과 <보기> 모두 일상적 사물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보기>에서 화자는 과장적 상황을 가정하여 입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입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 가겠다는 의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④ <보기>를 통해 화자가 입을

원망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성패관천운」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4 「성패관천운」에서 ‘이치에 밝은 선비’라고 한 것은 ‘선비’를 추켜올리기 위해 ‘이치’를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관군동」에서 ‘이치’는 앞에 제시된 내용 즉, 상대방과 화자가 선택이나 행동이 달라도 ‘속맘’은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을 볼 때, ‘이치’는 ‘그대’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패관천운과 「정치관군동」의 ‘이치’가 화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성패관천운」에서 화자는 상대방을 ‘이치에 밝은 선비’라고 추켜세우면서, ‘저울질을 삼가라’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화자는 1~3행에서 상대방을 추켜세우면서,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를 조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기>로, <보기>는 을지 문덕이 수나라 장수인 우중문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지은 한시이다. ②, ③, ⑤ 두 작품을 통해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심리나 상대방이 옳다는 인식, 상대방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6 <보기>를 고려할 때, ①의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보는 것은 현실의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실리적인 방책을 찾으려는 주화파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④의 ‘저울질을 삼가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목적 달성을 위한 ‘저울질’을 하지 말 것을 드러낸 것으로, 명분과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척화파의 입장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척화파는 현실의 이해득실을 따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싸나’는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말이므로, 이는 청과 끝까지 싸워 명분과 의리를 지키려는 척화파의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③에서 화자는 ‘권’을 비판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 ‘경’을 따라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권’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를 볼 때 청나라와 화친을 맺으려는 주화파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③ ‘털옷도 삼베옷도 옷 아닌 것 없느니’는 ‘털옷’과 ‘삼베옷’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옷’으로 같음을 드러낸 말이다. 따라서 이를 <보기>와 관련하여 이해하면, 청나라와 싸우자는 척화파나 청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주화파의 입장은 나라를 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속맘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는 비록 청과 싸우자는 것과 화친하자는 것이 다르지만, 나라를 위한 올바른 마음인 정도는 같음을 드러낸 말이다. 따라서 이는 작가 역시 척화파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행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ART 3 | 현대시

0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본문 126~13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독백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08 마지막 연은 질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1연의 물음에 대한 답이자 현실에 대한 재인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② 4 ① 5 ④ 6 ‘빼앗긴 들’은 억압된 조국을, ‘봄’은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빼앗긴 들’과 ‘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 이 글은 전체적으로 현실의 상실감과 봄의 풍경의 대비에서 오는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자연에 찾아온 봄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단순 관찰과 호기심으로 화자가 느끼는 정서적 괴리를 설명할 수 없다. ③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실제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단순히 충만함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⑥은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추가로 알게 된 현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질문 형식을 사용하여 국권을 빼앗긴 현실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말을 해 다오’에서 명령형 표현을 활용하여 국권 상실로 인한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③ ‘종다리’를 순박하고 친밀한 대상에 빗대어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풍요로운 국토를 ‘살진 젓가슴’에 비유하여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3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대비되는 일제 강점기 조국 현실에서 비롯된 상실감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 풍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봄은 오는가’라는 의문 형식을 통해 상실된 국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비유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국토에 대한 애정과 민족적 염원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④ ‘봄조차 빼앗기겠네’는 조국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자 더 이상 조국을 빼앗길 수 없다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빼앗긴 들’과 ‘봄’의 대비는 국토 상실과 소망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4 [A]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와 [B]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를 통해 자연(국토)에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A]에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③ [A]와 [B] 모두 두 고마운 심경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자연과 합일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④ [A]에는 일관적으로 기쁜 심경이 드러나 있으며, [B]에는 현실을 깨닫고 느낀 허탈함이 드러나 있다. ⑤ [A]에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B]에도 화자의 심경이 완화되는 계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 5 1연의 ‘~ 봄은 오는가?’라는 물음에 11연에서 ‘~ 봄조차 빼앗기겠

네'라고 답함으로써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ㄱ). 이 시의 2연~10연, 3연~9연은 각각 대칭적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ㄴ). 4~8연에서는 긍정적·상승적 어조를 보이는 반면, 9~11연에서는 현실 인식과 상실감이 강조되며 하강적 어조로 전환되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ㄷ. 2~10연은 각각 3행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초토의 시 1

본문 132~13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6 망울진 ‘개나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8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판잣집 유리막지’,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의 모습만 나타나 있을 뿐, 평화로웠던 과거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09 참혹한 전쟁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괴감만 있을 뿐, 이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 14 화자는 희망을 발견한 후 술에 취한 듯 흥겨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이지, 술에 취해 절망적인 현실을 잊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그림자 7 3연 / 전쟁으로 황폐해진 현실의 모습에 절망하다가 폐허 속에서 망울진 개나리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1 ‘판잣집’, ‘유리막지’, ‘젓더미’ 등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어둠의 이미지와, ‘해바라기’, ‘햇발’, ‘개나리’, ‘소녀의 미소’ 등 순수하고 희망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현실을 ‘판잣집 유리막지’,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와 같이 절망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현재의 모습만 제시되어 있을 뿐, 과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이므로 암울한 현실은 드러나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나타나 있지 않다. 화자는 ‘개나리’와 ‘소녀의 미소’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2 [A]는 <보기>와 같이 ‘저기 언덕’을 내려가는 소녀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지시어가 공간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를 통해 미소의 모습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② [A]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보기>를 이어진 문장 하나로 표현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③ ‘최 하나도 없다.’는 ‘소녀는 최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와 ‘소녀의 앞니가 모두 빠져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가 ‘언덕을 내려 달리는’으로 바뀌면서 ‘소녀’의 모습이 좀 더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 3 ㉠과 ㉡은 모두 화자가 발견한 희망을 의미한다. 화자는 전쟁의 비극적 참상에 절망하였다가, ㉠과 ㉡을 보고 난 이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 ㉡은 화자의 인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주제를 강조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과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아입되어 있지 않다. ③ ㉡은 전쟁이라는 인간사에도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과 ㉡은 모두 전쟁이 일어난 후인 현재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과거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4 1연의 ‘불타는 해바라기’ 같은 ‘아이들 얼굴’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3연의 ‘젓터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피어날 ‘개나리’는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도 봄을 알리는 자연의 풍경으로, 화자가 발견한 희망을 의미한다. 1연의 현재 ‘아이들 얼굴’이 3연의 미래의 ‘개나리’로 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판잣집 유리막지’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삶의 터전으로, 비참한 생존의 현상이다. ③ 2연의 ‘햇발’과 ‘나’가 돌아선 이유는 전쟁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낸 어른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④ 2연의 ‘그림자’와 5연의 ‘그림자’는 대조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인식의 전환이 있다. ⑤ 화자는 3연의 ‘개나리’와 4연의 ‘소녀의 미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5 ㉔는 전쟁의 비참함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발견음을 돌리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나도 돌아선다. /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㉔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삶의 터전을 드러낸 것이다. ② ㉔는 비극적인 ㉔와 달리 창문에 붙어 햇발을 찌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불타는 해바라기’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④ ㉔의 ‘골목’에서 화자는 젓터미 속에 핀 ‘개나리’를 발견함으로써 절망적이었던 인식을 희망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⑤ ㉔는 2연의 ‘울상이 된 그림자’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절망적이었던 화자의 현실 인식과 대응 태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오월 소식

본문 138~14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회상·상상·현재 인식이 교차하여 전개되므로 시간은 순차적이지 않다.
- 05 화자는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와 같이 자신의 정서를 자연과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자연 풍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 07 감탄문·의문문은 정서를 고조·변주시키는 역할을 하며,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 08 마지막 연의 ‘오르간 소리’는 화자의 내적 지향보다는 화자가 느끼는 감각 및 정서 표현에 더 가깝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6 ‘먼 황해, ‘풍랑’, ‘오르간 소리’ 등을 통해 그리움과 불안이 일렁이는 화자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1 이 글은 오월 자연의 생동감과 밝은 정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반된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림자 아니한가?’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매우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오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시 전반의 의미 형성과 화자의 정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시각·청각·촉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오월의 계절적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 화자는 오월의 자연 풍경과 그로부터 전해지는 감각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자신의 내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의 생명력이 사상 전개의 핵심이다. ② 자연을 관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다. ③ 비극적 현실 인식이나 허무 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정서를 이성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감각적·정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3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에서 ‘파랑새’는 ‘어린 나그네 꿈’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불안했던 과거의 경험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오월 자연의 풍경은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근대시의 개인적 정서의 발견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③ 일상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회상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근대시의 개인적 정서의 발견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④ ‘오월 벼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는 자연의 생동감이 화자의 마음을 활기치게 만드는 장면으로, 근대시의 감각적 표현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⑤ ‘외따른 섬’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이가 실제로 머무는 공간으로, ‘로맨틱’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낭만적 이미지를 자아내게 함으로써 화자의 정서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 4 3연은 화자의 내적 시선과 심상을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으로, 실제 갈매기 떼를 보는 화자의 모습을 영상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화자의 감정과 공간, 감각적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며, 시의 상황 및 정서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

5 이 글은 오월에 전해진 소식을 계기로 감정과 기억이 연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시적 상황을 한 장면으로 압축하기보다는 정서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오동나무꽃이 핀 여름 정경을 시작으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임소, 송아지 같은 시적 대상을 통해 정서가 환기되고 있다. ② 이 글의 화자는 오랜만에 온 편지를 받은 상황이며, <보기>의 화자는 길을 잘못 든 상황이다. ③ <보기>의 화자는 이 글에 비해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 관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이 글은 다분히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반해, <보기>는 화자의 시선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4 와사등

본문 144~14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등불’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차갑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자연물에 시적 대상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 08** 향토적 시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도 드러나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③ 4 ③ 5 ② 6 창백한 묘석, 무성한 잡초 7 비유적 표현 / 이 글에는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1 이 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비애에 잠겨 있다. 낯선 거리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미래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 있지만, 대결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⑤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2 직유법을 활용하여 ‘늘어선 고층’을 ‘창백한 묘석’으로,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표현하여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 내 호올로 어릴 가라는 슬픈 신호나’를 마지막 연(5연)의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내 호올로 어릴 가라는 슬픈 신호나’, ‘까닭도 없이 눈을껍고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등불’, ‘야경’과 ‘어둠’ 등 밝음과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내 호올로’에서 화자가 작품의 표현에 드러나지만, 표면적 화자를 통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시에서 시간의 순환적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어 해석하면 문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명과의 불화로 인한 상심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공허한 군중의 행렬’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긴 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찬란한 야경’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슬픈’, ‘낯설은’, ‘무거운 비애’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4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을 활용하여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으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지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적막한 배경인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사물인 ‘차단-한 등불 하나’에 주목하고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내 호올로’를 통해 화자가 쓸쓸한 처

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긴 여름 해가 훌쩍 저 버리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새가 날개를 접는 듯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㉕ ‘길-게 늘인 그림자’는 문장 부호 ‘-’를 사용하여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흐름을 조화시키고 있다. ㉖ 와사등의 차가운 느낌은 화자가 도시 문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5 ‘늘어진’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가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②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거부 반응이 드러나 있다. ④ 도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 ⑤ 와사 등의 차가운 느낌은 화자가 도시 문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05 연륵

본문 150~15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이 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08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㉔ 2 ㉔ 3 ㉔ 4 ㉔ 5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6 과거의 삶을 상징하는 ‘육지’에서 벗어나 화자가 지향하는 ‘섬’으로 나아가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의 나열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섬’으로 가려는 화자의 움직임이 ‘갈매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서른 남은 해’가 ‘꽃이파리처럼’ 무너져 발아래 깔렸다는 표현에서 허약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알 수 있다. ③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처럼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육지’와 ‘섬’의 대비를 통해,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는 ‘섬’으로 가려는 화자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갈매기’는 부정적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발로’는 ‘날이 갈수록’이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마저’는 ‘남김없이 모두’의 뜻으로 ‘연륵마저 끊어 버리고’는 과거의 삶과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또한’은 ‘그것과 같게’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 역시 불꽃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열렬히’는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강렬하게’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적극적인 태도로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불꽃’은 화자가 추구하는 열정적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연륵’에는 ‘불꽃’과 같은 열렬함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불꽃’이 ‘연륵’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꼽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서른 남은 해’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의미하는데, 화자가 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변변치 않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② ‘연륵’은 ‘피려던 뜻’이 굳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 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③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섬’으로 가려는 화자는 그전에 ‘육지’에 초라한 경력 즉,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두겠다고 하였다. 즉 ‘육지’는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부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열렬히 살리라’는 결핍된 상황(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4 이 글의 화자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초라하고 덧없는 삶을 버리고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내면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내면의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갈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은 ‘금’, <보기>는 ‘홀로’와 같은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대상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자세는 이 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06 정릉 살면서

본문 156~16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의인화된 자연과 화자의 교감이 드러나 있지만,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는 않다.
- 08 '그뿐인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상의 반전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① 4 ③ 5 바람, 햇빛, 실개천 6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1 '친구여'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었지만, 시상의 반전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3연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일러 주고 있고', '쓰다듬어 주고 있고', '흐르고 있고'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③ 시적 대상인 자연을 의인화한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있다. ③ 자연은 화자를 일깨워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거나 정화해 주기도 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제시되어 있다. 화자는 자연을 '눈을 나게 넘치는 자산'으로 여기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내 잘못 살아온 서른여섯 해'를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눈을 나게 넘치는 자신을 /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다.'를 통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3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의인화된 자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 것은 <보기>뿐이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색채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대상이 지닌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자와 대상이 대비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아니라 <보기>이다.
- 4 '눈물 나게 넘치는 자산'은 화자의 주관적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대상(자연)에 대한 화자의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의 유한성과 자연의 영원성이 대비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시상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도 드러나 있지 않다.

07 꽃

본문 162~16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전반에서 강인하고 굳센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
- 05 반어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에서 꽃이 빨강게 핀다는 역설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③ 4 ④ 5 ⑤ 6 노래 /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1 '꽃', '꽃 땀아리', '제비 떼'와 같이 자연물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지만,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광복에 대한 열망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③ 1연의 '쉬임 없는 날이며', 2연의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며'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광복을 향한 화자의 의지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④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나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에서 붉은색, 검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와 광복에 대한 확신을 부각하고 있다. ⑤ 3연의 '한 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꽃'에서 광복된 조국의 모습을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광복의 환희를 드러내고 있다.
- 2 화자는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화자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 ④ 강하고 의지적인 어조가 사용되었다. 설득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 3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한 미래의 시점에서 희망을 이룬 우리 민족을 표현한 것이다. 즉, 긍정적 미래를 맞이한 이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비판적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비 한 방울 나리잖은'은 '꽃'이 필 수 없는 극한적 상황이나, 오히려 '꽃'이 '빨강게' 핀다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현재의 시련을 이겨 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눈 속 깊이'를 통해 겨울의 추위를,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를 통해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 원리를 통해 봄이 도래할 것에 대한 확신과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1, 2연은 유사한 구조를 활용하여 의미적으로 대응되고 있다. 즉, 부정적 현실 인식과 이를 극복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3연에서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재의 비극적 상황을 이겨 내려 하고 있다. ⑤ '꽃 땀아리'는 '꽃'으로 자리 '꽃성'을 이루게 된다. 이를 통해 시련을 이겨 내는 생명력과 의지가 결국 긍정적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 4 ㉠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빨강게 피어난다는 점에서 불의한 현실에 처해 있는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은 북쪽의 극지로 '꽃'이 피어날 수 없는 극한의 공간으로, 화자에게 시련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이 아니라, ㉠에 가깝다. ② ㉠이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은 시련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해의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③ ㉠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미래

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련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현재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 5 ‘꽃성’을 떠올리며 ‘오늘’ 여기서 화자가 부르는 ‘너’는, 화자가 염원하는 바인 ‘조국 독립’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시인 이육사는 선명한 저항 정신을 표현한다고 하였으므로, 친일로 전향한 이들을 포용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하늘도 다 끝’난 곳,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는 극한의 시련을 겪는 절망적인 공간과 시간으로, 당시 일제의 강압적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제 강점하에서 화자가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가는 길은 독립운동의 길로 볼 수 있다. ③ ‘꽃 맹아리’는 아직 피지는 못했으나, 꽃을 피울 가능성과 힘을 지닌 존재이다. 이는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과 독립의 기운이다. ④ 2연에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과 같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봄, 곧 조국 독립을 의미한다.

- 6 이 글에서 ‘꽃’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며, <보기 2>에서 ‘(내가 부른) 노래’ 역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

08 누룩

본문 168~17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술을 빚는 데 사용하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05 화자는 ‘우리’로 표면에 드러나 있으나 누룩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않다.
- 08 누룩이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알맞은 바람’ ‘살며시 더운’이다.
- 10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는 누룩의 발효를 의미한다.
- 12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 냄새 퍼지나니’에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③ 4 ① 5 알맞은 바람, 살며시 더운 6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역설법으로,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 ㉡는 누룩의 죽음으로 빚어진 술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뜻으로, 민중의 희생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알겠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에서 ‘-느냐’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독자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문지답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② 누룩의 발효 과정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상인 누룩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2연에서 청각적 심상(‘우는 울음’)을 통해 대상이 받는 고통과 시련을, 5연에서 후각적 심상(‘냄새 퍼지나니’)을 통해 대상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누룩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누룩을 의인화하고 있기는 하나, 누룩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 2 ㉡은 흑한 속에서도 빛나는 별을 뜻하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을 상징한다.

오답 해설 ① ㉠은 누룩이 ‘알맞은 바람’을 만나 ‘살며시 더운’ 환경에서 발효되기 시작하였음을 뜻하며, 민중이 열정을 지닌 뜨거운 존재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어지는 ‘그 사랑을 알겠느냐’로 볼 때, 민중이 서로에게 갖는 연대 의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② ㉡은 누룩이 술이 되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보냄을 나타내며, 누룩으로 상징되는 민중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겪는 시련을 암시한다. ③ ㉡은 누룩 혼자만이 찾는 길이 아니라 민중이 함께 찾는 길이라는 점에서, 민중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람직한 역사의 방향을 나타낸다. ⑤ ㉡은 발효된 누룩이 뜨는 냄새로, 이 냄새가 퍼진다는 것은 민중의 힘과 의지가 점차 강해지고 확산되어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 3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지닌 민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누룩’은 이 글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로, 누룩이 발효한 후 술이 되기 위해 인내와 자기희생을 감내한다는 점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 어

다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로 볼 때, 누룩은 혼자서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알맞은 바람'이나 '살며시 더워져 발효하여 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④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은 누룩의 발효 과정을 나타냄과 동시에, 민중이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은 누룩이 발효 과정에서 고통을 인내함을 나타내며, 민중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 4 누룩이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은 술을 빚기 위한 누룩의 자기희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아니라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시구이다. ㉡에 들어갈 시구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2연의 '엄동설한'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누룩이 '나자빠져 있다'는 것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민중의 나약한 모습을 의미한다. ③ '알맞은 바람'은 누룩이 발효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중의 각성이라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볼 수 있다. ④ 누룩이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누룩의 발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미래를 위한 민중의 희생을 뜻한다. ⑤ '해 솟는 얼굴'은 누룩의 죽음으로 빚어진 술이 사람들에게 주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이는 민중이 희망한 세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9 나비와 광장

본문 174~17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비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03 현재의 상황 묘사에서 출발하여 나비의 현실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4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실된 순수함에 대한 복원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는 거리가 멀다.
- 05 청각적 심상보다는 주로 시각적 심상에 의해 전쟁의 참혹함과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07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종교적 초월 의지가 아니라, 신도 기적도 없는 현실에서의 실존적 대결을 다루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③ 4 ③ 5 ② 6 흰나비는 폭력적 현실 속 연약한 존재를 뜻하는데, '대결'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맞서려는 흰나비의 의지를 드러낸다.

- 1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인 '흰나비'와 거대하고 폭력적인 기계 문명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가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는 독백적 어조가 나타난다. ③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희망의 부재와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현재형의 어미가 사용되어 현장감을 주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애상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현대 문명의 폭력성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존재들을 보여 주고 있지만,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 2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 '흰나비'라는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감정은 시적 대상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슬픔이나 상실감을 직접 고백하고 있지 않다. ③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성을 억압하는 문명과 폭력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④ '광장'은 불모의 공간으로, 무상감이나 공허함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문명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⑤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탐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3 <보기>에서 시인은 '현기증·돌진·파편' 등의 언어가 '어린 생명체로서의 나비의 영상을 부조시키는데 무척 부자연스럽고 거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어휘들은 나비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돋보이게 하기보다 이질감과 거친 감각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③과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시인은 연약한 나비가 '어둡고 슬픈 생명을 지닌 시인 자체의 변신'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나비를 시인의 내면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시인은 나비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의 환상과 생명이 떠오른다'고 하였으므로 이 글에 나타난 의문형 표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광장'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황폐한 현실(폐허)과 내면의 슬픔(상념)이 함께 덧입혀진 상징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보기>

에서 시인은 '현기증·돌진·파편' 같은 언어가 나비의 영상에 '부자연스럽고 거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언어로 시의 언어를 정돈해 보려는 욕구 때문에 그 언어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 4 ㉔은 나비의 '안락'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비를 보호하거나 안정시키는 공간이 아니다. 또한 차갑고 비인간적인 문명을 형상화한 것으로, 나비의 고통과 절망을 강화한다.

오답 해설 ① '활주로'는 전쟁·기계 문명의 공간으로, 연약한 흰나비에게는 가혹한 공간이다. ② '피 묻은'과 '파편'은 폭력의 결과로, 파괴된 현실과 생명의 훼손을 상징한다. ④ '숨 가쁜 제트기'는 '이동하는 계절'을 가로지르며 현실 세계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존재이다. ⑤ '하얀 미래'는 희망을 나타내지만, '어느 지점'은 불확실한 미래, 도달하지 못한 이상을 상징한다.

- 5 이 글과 <보기> 모두 특정 인물의 죽음과 그로 인한 화자의 슬픔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굽어'보고, '파닥거'리고, 다시 '대결하'려는 나비의 움직임, <보기>는 '내려갔다'가, '날개'가 젖고, '지쳐서 돌아'오는 나비의 움직임에 따라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나비가 '활주로, 제트기' 같은 거대한 문명 공간과 마주하는 상황, <보기>는 나비가 깊고 넓은 바다와 마주하는 상황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에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대결하려는 나비의 태도가, <보기>에는 깊은 바다로 갔다가 지쳐 돌아오는 나비의 서글픔이 나타나 있다. ⑤ 이 글은 '활주로, 광선, 제트기' 등과 같은 이미지로 차갑고 폭력적인 현실을, <보기>는 '바다, 무우밭, 달' 등의 이미지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0 민들레꽃

본문 180~18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2연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민들레가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일 뿐 민들레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 03 '노랑게'라는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민들레의 생명력, 삶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 민들레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⑤ 4 ① 5 ① 6 직유법 / 짧은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태도이다.

- 1 민들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민들레는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들레는 이런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에 대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화자는 이런 민들레의 내적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② 민들레는 '찌그만 것'이지만 '어떤 지로도' 그 크기를 켤 수 없는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③ 화자는 강한 생명력으로 자신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민들레의 모습을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연결하고 있다. ④ 민들레는 바위 사이이거나 잡초 속이라도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운명으로 수용하고 강한 생명력을 통해 꽃을 피워 낸다.

- 2 4연과 5연은 각각 '맺새'와 '꽃'이라는 명사로 종결하고 있으나, 1연은 '있다', 2연은 '끝까지', 3연은 '잡고', 6연은 '있다' 등으로 명사로 종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연을 명사로 종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4, 5연에서 명사의 종결은 민들레의 모습에 대한 시적 여운을 주는 것일 뿐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 시에서 구조적 안정감은 수미상관법이나 시행의 규칙적 배열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

오답 해설 ① 2연의 '아슬아슬'은 '마음이 약간 위태롭거나 조마조마한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이는 민들레가 한계 안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생동감 있게 드러낸다. ② '노랑게', '찌그만 것', '열심히'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민들레의 작고 노란 외형적 속성과 강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워 내는 내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6연의 '보라'라는 명령형 어조를 통해 좌절하지 않고 운명에 맞서는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6연에서 '좋은 꿈 아니냐'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민들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3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은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민들레의 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다음 행에서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민들레는 '찌그만' 존재이지만 '노랑게 노랑게' 전력을 다해 피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외형적 크기와 달리 대상의 내적 가치가 충실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2연에서 민들레는 다른 꽃을 욕심 내지 않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㉓ 민들레는 꽃을 피우는 일을 숙명으로 여기고 노력하지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유한적 존재이다. ㉔ 민들레는 작지만 그 존재 가치는 외형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예찬이 드러난 표현이다.

4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민들레꽃’을 대상으로 한 시이다. <보기>에서 민들레꽃은 ‘얼마나한 위로이나’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듯 화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민들레꽃’은 좌절하지 않고 허무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 될 뿐, 위로가 되어 주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㉒ 이 글의 ‘노랄게’와 <보기>의 ‘노오란’은 모두 민들레꽃의 외적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㉓ 이 글은 2연에서 민들레꽃을 의인화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2연 역시 민들레꽃이 화자를 찾아온 다며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㉔ <보기>의 화자의 주된 정서는 외로움이다. 1연에서 ‘마음 외로울 때’라고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이 글에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㉕ 이 글의 6연에서 ‘꼭짓 것이지 만 ~ 짚 수 없다’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5 ㉑은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민들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화자가 관찰한 민들레의 강인한 생명력이 나타나 있을 뿐, 화자의 소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㉒ 3연에서 민들레는 성장하기 불편하고 좁은,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㉑의 상승 이미지는 민들레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㉓, ㉕ <보기>는 상승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㉑에서는 물을 아래에서 위로 ‘길어 올리는’ 모습과 땅속의 ‘어둠’을 ‘밀어내’고 위로 있을 피우는 모습 등에서 상승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㉔ ㉑은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기 노력하는 민들레의 모습을 상승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11 그 방을 생각하며

본문 186~19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 시의 화자는 ‘나’로 겉으로 드러나 있다.
- 04** 마지막 연을 반어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② 4 ④ 5 ③ 6 반복법, 열거법 /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1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처럼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㉒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활용하고 있지 않다. ㉓ 6연에서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㉔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㉕ 화자는 ‘나’로 드러나 있으나, 청자 없이 스스로의 감정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혁명의 좌절로 인한 실망을 가벼움으로 표현한 것이, 화자가 이전과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싸우라’, ‘일하라’는 모두 혁명의 구호였는데, 이를 헛소리와 연결 지으면서 화자가 혁명 정신을 공허하게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혁명의 의지를 ‘달콤한’에, 이후 퇴색한 현실을 ‘쓰디쓴’에 연결함으로써 혁명에 대한 기대와 괴리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③ 화자가 혁명의 노래들을 모두 잊었다고 한 것은 좌절된 혁명으로 인해 열정을 잃어버렸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펜’, ‘뺨’, ‘광기’는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이 녹슬었다는 것은 화자의 내면에서 이전의 혁명 정신이 삭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방에 남겨둔 ‘모든 노래’는 혁명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재산을 잃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혁명이 안 된 것과 방을 바꾼 것을 연결하여 이해하면, 방을 바꾼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벽’이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을 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혁명의 퇴색 이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한다. ⑤ ‘~을/를 잃고’가 반복되는 구절에서 ‘방, 낙서, 기대, 노래, 가벼움’은 모두 화자가 풀었던 이상이나 가치 등의 추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달콤한 의지의 잔재’는 사라진 혁명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상반된 가치들 사이의 긴장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이 글의 ‘혁명’은 4·19 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작의 계기로 볼 수 있다. ② 혁명 구호를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것은 혁명의 가치가 보존되지 않는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펜’이 일반적으로 지식인 계층을 상징한다면, ‘녹슬은 펜’은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작가를 포함한 예술가, 지식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화자의 메마른 가슴은 진정한 참여에 이르지 못하고 열정을 상실한 자신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5 이 글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혁명의 좌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적 망각의 행동이라면, <보기>의 ‘잘 있거라’는 사랑을

잃은 후의 상실감을 나타내며, 추억을 보내지 못하는 미련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혁명 정신에 대한 상실을, <보기>의 화자는 사랑의 상실을 느끼고 있다. ② 이 글의 '그 방'은 과거 혁명 정신이 담겨 있는 방이며, <보기>의 '빈집'은 과거의 사랑의 감정들이 남아 있는 공간이라는 유사한 특성이 있다. ④ 이 글의 '모든 노래'는 <보기>의 '내 사랑'처럼 화자가 가지 있게 여겼던 대상이다. ⑤ 이 글의 화자는 혁명의 좌절 이후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방을 바꾸었고, <보기>의 화자는 사랑을 잃고 문을 잠그고 있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는 말이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으며, <보기>의 '빈집'은 문을 잠금으로써 '내 사랑'이 갇히게 된다. 따라서 방을 바꾸고 문을 잠그는 것은 화자의 과거를 가두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12 달밤

본문 192~19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화자는 '나'로, 자연물이 아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다.
- 04 '들판', '달빛' 등 시각적 심상과 '얼은', '헐벗은' 등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 07 화자는 달빛을 받으며 언 들판을 걷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뿐,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⑤ 3 ⑤ 4 ④ 5 ③ 6 3~4행과 2행의 순서를 서로 바꾸어 표현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1 역설적인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친구 몇몇 친구 몇몇', '달빛 달빛'에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② '달빛 달빛'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여운을 주고 있다. ④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오랫동안 네 여머운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얼은 들판', '얼음'과 '달빛'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2 '가득히'는 헐벗은 화자에게 달빛이 비추는 상황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부르다면'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말이므로 이미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 ② '보여 주리라'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보여 주는 표현으로 고압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③ '이제' 시작되는 외로움이 아닌 길은 화자의 성찰로 깨달은 길이지 친구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길이 아니다. ④ '갑자기'는 들판에 구름이 개이고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으로, 화자가 이를 당황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 3 '헐벗은 옷'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당당히 드러낸 화자의 모습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삶의 자세이다.

오답 해설 ① '얼은 들판'과 '달빛'은 대조되는 이미지로,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시대 상황과 깨끗하고 순수한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화자 자신에게 던지는 성찰적 질문이다. ③ '얼은 들판'과 '얼음'은 모두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 ④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는 화자는 '달빛'을 받고 있으므로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4 화자는 혼자 언 들판을 걷고 있으므로 친구들과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화자는 언 들판을 홀로 걸어가고 있으므로 상황이 부각되도록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언 들판에 가득 비치는 달빛의 모습을 중심으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화자의 모습을 고려할 때, 두 팔을 들고 당당히 걷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 5 이 글의 '친구 몇몇'은 화자가 자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긍정적 속성을 가진 인물들인 반면, <보기>의 '몸(맘)을 팔아버린 빗'은 부정적 현실과 타협한 부정적 속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겨울을 계절적 배경으로 한다. ② 이 글에서는 ‘친구 몇몇’, ‘달빛’이 반복되고 있고, 〈보기〉에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그러는 동안에 ~ 밧도 있다’ 등이 반복되고 있다. ④ 이 글의 ‘달빛’은 순수함, 깨끗함을 지닌 대상이지만, 〈보기〉의 ‘달빛’은 ‘태양’과 대비되는 차가운 이미지의 시어이다. ⑤ 이 글의 ‘구름 개인 들뜬’은 달빛이 가득 쏟아지는 긍정적인 의미의 공간이고, 〈보기〉의 ‘어느 언덕 꽃덤불’ 역시 화자가 꿈꾸는 이상이 실현된 공간이다.

13 눈 오는 날에

본문 198~20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으나,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3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즉 ‘눈’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 05 고요하고 평안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화자는 현실을 덧없고 허무하게 인식하지만, ‘눈’을 매개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는 정서적 변화를 드러낸다.

- 1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1연과 2연에 한복을 입고 창문에 기대어 눈을 바라보는 화자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② 화자는 절망과 허무를 느끼다가 내리는 눈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 ④ ‘절망이란 오히려 /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구나’에서 알 수 있다. ⑤ ‘값진 보람과 / 빛나는 지랑을 모조리 불사르고’에서 추상적 개념인 ‘보람’과 ‘지랑’을 ‘불사르는’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하였다.
- 2 ㉠과 달리 ㉡은 시적 대상인 ‘대나무’가 ‘눈’에 의해 휘어졌으므로 고통을 주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은 의인화된 것이 아니며 예찬의 대상도 아니다. ③ ㉠과 달리 ㉡은 화자의 내면에 안정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과 ㉡에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지만, 순결한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 3 ‘시공’을 수식하는 ‘허망한’을 통해 화자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검정 수목 두루마기’와 ‘흰 동정’에서 전통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근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울타리 위’와 ‘장독대 위’는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인 ‘눈’이 위치한 곳이다. ④ ‘서리벌 천년의 풀피리 소리’는 화자의 안정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정치로 과거를 향한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⑤ 시상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 있으나, ‘낙엽’은 ‘보람’과 ‘지랑’을 빚댄 대상이며, ‘꽃다발’은 ‘눈’을 빚댄 대상으로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글의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겨울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A]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이 역력히 들립니다’에도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있었노라’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② ‘홀륭한’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③ ‘사소한 일’, ‘사소함으로’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⑤ ‘외우기도 좋아라’, ‘읽기에도 좋아라’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5 화자가 바라보는 ‘눈’은 내려서 쌓이는 속성이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외부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② ‘보람’과 지랑 ‘을 화자가 주체적으로 불살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④ 화자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서리벌 천년의 풀피리 소리’로, 화자에게 비애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다. ⑤ ‘포근한’ 것은 눈의 실제 특성이 아니라, 화자가 느끼는 정서이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차마’를 통해 떨어져 가는 연등을 보며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삶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 06 ‘등불’을 ‘별빛’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㉕ 3 ㉑ 4 ㉒ 5 ㉔ 6 등불에 현실의 고통을 담아 날려 보냄으로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1 물 위에 떠 있는 연등의 수평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를 보고 싶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수천, 수만 개의 연꽃 등불 밤하늘 별빛인 양 / 물 위에 떠서’에서 개인적 소망을 보편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④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에서 알 수 있다. ⑤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 얼마나 좋으랴’에서 알 수 있다.
- 2 ‘눈물의 제의’, ‘세상의 온갖 설움을 품 몸이 두둥실 / 물 위에 떠서’로 보아, ‘유등제’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해 저문 강가’는 등불을 보며 화자가 현실에서 느낀 고통을 위로받는 장소이다. ②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난 곳이 ‘불귀의 하늘’이어도 / ‘나는 좋으리’라고 한 점으로 볼 때, ‘불귀의 하늘’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를 보고 싶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어둠’이 부정적 이미지로 쓰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등불을 바라보며 /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을 알 수 있다. 이상적 세계로 향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와는 거리가 멀다.
- 3 이 글의 ‘부디 저 길이 극락에 이르소서’를 통해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유등을 띄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도 ‘당시 순절한 7만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유등을 띄웠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 유등은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화자는 유등을 보며 삶의 설움을 내려놓고 평안을 기원하고 싶어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불행한 삶을 알리기 위해 유등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보기>에서도 불행한 삶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을 통해 유등과 관련된 사회 현실을 알 수는 없다. ⑤ 이 글에서 ‘머나먼 행렬을 이루면서 ~ 흘러가는’을 통해 유등이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에서 유등이 떠난 후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4 ㉑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서도 역설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서럽지 않아’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③ ‘얼마나 경쾌하냐’,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④ ‘잇었노라’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⑤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5 이 글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뿐, 활력

에 차 있지 않다. 반면 <보기>에서는 ‘네 활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 보고 싶다’를, <보기>에서는 ‘날자.’와 ‘한 번만 더 날자꾸나(날아 보자꾸나.)’를 반복하여 각각 화자와 서술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이 글의 화자는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하며, <보기>에서도 다시 한 번 날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나’가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이 말소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나’ 모두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포스터 속의 비둘기

본문 210~21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비둘기는 시적 대상에 해당한다.
- 05 시각적 이미지(‘갯가루’)를 통해 시적 대상이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06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비둘기의 모습을 제시하며 부정적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③ 4 ② 5 포스터, 지붕마루(=하늘) / ‘포스터’는 비둘기가 현재 존재하는 곳으로 자유가 없는 곳을 상징하며, ‘지붕마루’는 비둘기가 과거에 존재했던 곳으로 자유로운 곳을 상징한다.

- 1 시적 대상인 비둘기의 자유로운 과거와 포스터에 들어앉은 현재를 대비하여 비둘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붕마루’와 ‘포스터’의 대비가 나타나 있을 뿐, 이미지의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자연물인 비둘기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는 알고 있는데 /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 / 마셔 볼 공기가 없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이상 세계를 향한 강한 염원은 드러나 있지 않다.
- 2 시적 대상인 비둘기가 자유를 상실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부정적 현실 속에서 ‘결혼질을 하’며 포스터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 저항 의지를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자유로웠던 비둘기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한 점으로 보아, 현실 대처 방식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구속과 억압을 상징하는 ‘포스터’ 속에는 자유로웠던 시절 마음껏 누렸던 ‘하늘’과 ‘공기’가 더 이상 없다는 표현을 통해 자유를 억압당한 비둘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부정적 현실에 참지 못하고 주리를 뜨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는 비둘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3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도시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 증병을 앓고 있는 자연을 상징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비둘기가 한때 노닐던 ‘지붕마루’를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름답고 순수했던 과거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도 ‘공기’도 없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④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억압과 구속 속에 살아가는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 주류에서 밀려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⑤ ‘포스터’는 자유롭게 노닐던 과거와 달리 자유를 잃어버린 현재의 비둘기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 4 <보기>에서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비둘기의 터전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비둘기의 터전이 황폐해진 원인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슴에 금이 갔다’, ‘항수를 느끼다가’ 등에서 <보기>의 비둘기가 의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과 <보기>에서 ‘비둘기’는 현대 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을 상징한다. ④ <보기>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가 ‘쫓기는 새가 되었다’에서 비둘기의 부정적 현실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의 ‘돌개는 산울림’, ‘채석장 포성’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비둘기가 처한 문명의 폭력성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대설주의보

본문 216~22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 06 ‘눈’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② 4 ④ 5 ④ 6 중의적 표현 / 첫째, 눈보라가 치는 위협적인 자연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계엄령이 발표된 시대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 말줄임표의 사용을 통해 굴뚝새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굴뚝새(검정)’, ‘눈보라(흰색)’ 등의 사용으로 시적 대상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대화의 형식이 아닌 독백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④ 수미상관식 구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 2 ‘제설차’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절망적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눈’은 민중의 터전에 해당하는 ‘굴짜기’를 덮치고 있다. ② ‘덤벼드는’에서 눈의 역동적 이미지 및 폭압적 속성을 알 수 있다. ③ 눈 덮인 ‘백색의 산들’의 형상을 해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눈이 내리는’의 의미 외에 ‘명령을 내리는’의 의미로 해석되어 군사 독재 정권을 우의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은 군부의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주의보’는 ‘대설’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대설’은 군부의 폭압 정치를 의미한다. ③ ‘길 잃은 등산객들’은 폭압적인 권력에 의해 생명력을 잃어 가는 민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민중을 상징하는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추는 것은 국민이 공포감으로 인해 대피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⑤ ‘눈’이 온 산과 굴짜기를 덮었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군부의 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악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4 ‘눈 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에서 ‘소나무’는 억압받는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솔개’와 ‘굴뚝새’는 각각 군부 정권(강자)과 민중(약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논리의 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하수’는 민중에게 ‘덤벼드는’ 눈의 폭압적 모습을 빗대기 위해 사용되었다. ③ ‘백색’은 군사 정권을 상징하는 ‘눈’을 대표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⑤ ‘굴뚝새’를 왜소한 존재로 묘사한 것은 현실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 5 ㉓은 억압된 민중을 상징한다. ㉔은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에 처해져 있으므로 ㉓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독’이란 일제로 상징되는 ‘이리, 송냥이’에 대한 대결 의지를 뜻한다. ② ‘뱃’은 현실에 순응한 인물이다. ③ ‘이리 송냥이’는 화자가 독을 차고 맞서고자 하는 대상으로 일제에 해당한다. ⑤ ‘내 외로운 혼’이란 ‘독’을 품고 일제에 저항하겠다는 민족정신에 해당한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역순 행적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2 자연물인 '백일홍'과 '나'를 대응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직접 투사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5 이 글에서 화자는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 08 이 글은 일반적인 행과 연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았/었습니다'의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① 4 ① 5 ④ 6 피 /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상징한다.

- 1 이 글에서 화자는 여름의 수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 나무 백일홍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나무 백일홍이 붉은 꽃을 피워 낸 외부 세계의 정경을 보고 내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자연물과 화자를 대응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시적 대상은 나무 백일홍이다. 이를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마당'은 화자가 나무 백일홍을 바라보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는 토속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인 '여름'은 백일홍이 피고 자는 계절이라는 점에서 주제 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름'은 화자의 내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뿐, 화자가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소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화자는 '-습니다'의 산문적 어투를 사용하여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낸 자신의 체험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영탄적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화자도 나무 백일홍처럼 여러 차례 폭풍을 견뎌야 할 정도로 힘든 시련을 견뎌왔기에 절망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연의 '장난처럼'은 절망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반어적 표현이다. ② 이 글에서 화자는 수차례 반복되는 태풍에서 붉은 꽃을 피워 낸 나무 백일홍을 보며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는 과정을 고백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다. ③ 1연의 '쏟아지는 우박처럼'이라는 구절에서 작유법을 사용해 나무에 매달린 '붉은 꽃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의 각 연에서는 '매달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등 '-았-'이라는 과거 시제 어미를 사용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 3 1연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피워 낸 '나무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1연의 색채어인 '붉은 꽃들'의 '붉은'은 백일홍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2연의 '붉은 꽃들'은 화자의 절망이 심화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므로, 강렬한 색채어인 '붉은'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절망의 강도를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불을 뿜는 나무'는 폭풍이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역센 꽃이라는 결실을 맺은 백일홍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④ '역센 꽃들'은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일홍과 대응되는 화자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으므로 백일홍처럼 자신도 시련을 극복하고자 한다. ⑤ '좁은 마당을 피로 덮'었다는 것은 나무 백일홍이 힘겹게 폭풍이라는 시련을 견뎌움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피'는 시련을 견뎌 내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으로 볼 수 있다.

- 4 이 글에서 '폭풍'은 화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대상이므로 내적 번민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기>의 '바람' 역시 화자에게 괴로움을 유발하였으므로, 내적 번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 '하늘'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대상으로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아 성찰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화자는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며 자신도 절망을 극복하고자 할 뿐이며, 이를 통해 극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보기> 역시 부정적 현실이 극복되기를 바랄 뿐 이에 대한 확신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의 '폭풍'과 <보기>의 '바람'은 화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이 시 역시 부정적인 시련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이 글에서는 폭풍우에 쓰러지지 않는 모습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보기>의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보기> 역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나타나 있다.

- 5 [B]는 폭풍이 닦쳤을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C]는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 백일홍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을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C]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의 '백일홍'처럼 [B]의 '나'도 '붉은 꽃들'을 매달고 있다. 즉, '백일홍'과 화자가 서로 대응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백일홍과 '나'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와 [B]는 모두 '그 여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의 일관된 관점에서 기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의 '붉은 꽃들'은 '폭풍'을 극복하고 피어난 결실을 의미하지만, [B]의 '붉은 꽃들'은 절망이 심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⑤ [A]에는 화자가 바라본 백일홍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고, [C]에는 백일홍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A]와 [C]가 인과 관계로 엮여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동일한 시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다.
- 03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백체를 사용하고 있다.
- 06 화자가 시적 대상인 '그 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08 '매달까요? 있을까요?'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④ 4 동일시 5 ③ 6 ③ 7 '소지는 불교에서 종이를 태우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행위를 뜻하며, '가난한'은 화려하지 않은 행위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가난한 소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다.

- 1 화자는 시적 대상인 '그 나무'가 늦되고 소외된 존재임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는 '어딘가 안쓰러웠지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시적 대상인 '그 나무'에 연민을 느끼고 있으므로 대결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③ 화자는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를 통해 시적 대상과 자신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는 시적 대상인 '그 나무'의 늦됨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는 시적 대상인 '그 나무'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 2 화자는 '그 나무'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체험을 우의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빗꽃이 가득 핀 길을 걷다가 시적 대상인 '그 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관찰하고 있다. ③ 봄을 나타내는 '빗꽃, 봄, 봄길' 등의 시어와 여름을 나타내는 '여름, 푸릇한 잎새, 무거운 청록'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지요'로 끝맺는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독백체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들긴 게 부끄러운지'에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 3 [A]에서는 대조되는 대상인 '빗꽃'과의 비교를 통해 '늦된 그 나무'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빗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이며, '늦된 그 나무'는 소외되고 소극적이며 느린 성격을 가진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의성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직접 인용이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⑤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4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소외된 '그 나무'와 방황했던 과거 화자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다.
- 5 '산에서 내려 ~ 곁에서 서성거렸지요.'는 화자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은 화자 자신이 겪

었던 젊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늦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늦된 '그 나무'와 함께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을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미처'를 통해 '그 나무'의 부족하고 뒤쳐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멈칫거리는'을 통해 '그 나무'의 소극성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에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②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을 통해 ㉠의 주체는 '그 나무'임을 알 수 있고, ㉠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④ '병든'은 실제로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기보다는 '그 나무'의 늦됨에 대한 표현이다.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와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빗꽃들의 가을 모습이고, ㉠은 자신과 동일시되는 늦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에는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고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6 '불타는 소신공양'을 푸르던 잎이 낙엽으로 지고 다시 꽃이 피는 자연의 결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교의 환생 의미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소신공양'은 원래 사람이 자신을 태워 바치는 의식인데, 푸른 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마는 자연의 모습에서 소신공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② '여름도 지치고 말면'에서 가을에 일어나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틈새'를 사이에 두고 '불타는 소신공양'과 '가난한 소지'가 대비되는 시어라고 생각한다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를 화려한 단풍으로 가득한 나무들의 좁은 틈바구니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불타는'이 화려함을 나타낸다면 이와 대비되는 '가난한'은 화려하지 않으며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사랑하는 사람아', '네'를 통해 청자를 드러내고 있다.
- 05 '무지개', '별', '벼랑에 피는 꽃'과 같이 멀리 있는 것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① 3 ③ 4 ④ 5 ② 6 멀리 있는 것 7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
일수록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

- 1 이 글에서는 계절이 드러나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늦은' 현재의 상황이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무지개', '별', '벼랑에 피는 꽃'을 나열하여 '멀리 있는 것'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사랑하는 사람아', '네'에서 청자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③ '멀리 있는 것은 ~ 아름답다'와 '늦는다는 것은 ~ 것이다'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⑤ '멀리 보낸다는 / 것이다.'에 행간 결침이 나타나고 있다.
- 2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헤어짐이 아닌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내적인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다. ③ 화자가 시적 대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의 내적인 성숙함과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늙음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 3 '떨어지는 일일 뿐'은 이별이 특별하고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비록 먼 거리에 있지만 떨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삶의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마라'에는 명령형 어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별을 서러움이 아닌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헤어지는 일'은 이별이 가진 일반적인 인식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④ '마지막 편지'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맞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바라볼 줄을 안다'에서 이별의 의미를 깨달고 이를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4 [A]에서 화자는 이별을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 떨어지는 일일 뿐'이라며 이별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별의 치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② 이별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이별의 원인을 화자 자신의 미성숙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⑤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이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
- 5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늙음, 이별'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멀리 있는 것'을 '무지개, 별, 벼랑에 피는 꽃'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보기>에서는 늙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백발'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돋보기'와 <보기>의 '백발'은 늙음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④ 이 글의 청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며, <보기>의 시적 대상은 늙음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대기와 가시로 막는다는 표현을 통해 해학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에는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관조적 자세와 '이별'에 대한 단정적인 자세가 드러나는 데 비해, <보기>는 늙음에 대한 낙관적이고 달관적인 자세가 드러난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이 글에서는 시적 대상인 차심을 인간관계에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너와 나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 04 이 글에서는 어미 '-지'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지는 않고 있다.
- 07 이 글에서는 상대방에게 말하는 부드러운 어투는 사용하고 있지만 명령형 어미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10 이 글에서 시적 대상인 '차심'이 지닌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차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을 통해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④ 4 ③ 5 ④ 6 '뜨거운 찻물'은 '잔금'을 '차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잔금'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1 이 글에서는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이라고 의존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상 종결은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지만, '너'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지는 않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처음과 끝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수미상관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어미 '-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지는 않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 2 화자와 '너'와의 관계가 깨졌음을 알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진 원인이 화자 자신에게 있다고는 여기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걸리진 너와 나 사이에도'를 통해 화자가 '너'와의 관계가 깨진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걸리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을 통해, 화자가 깨진 '너'와의 관계가 '잔금'이 '차심'이 된 것처럼 단단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차심'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인간관계인 '너와 나'의 관계로 확장하여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을 통해 '너와 나 사이'가 깨진 삶의 고통도 자신의 몸처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알 수 있다.
- 3 ㉔는 오래된 잔에서는 차심이 굳게 박혀 있어서 '차심'만으로도 차 맛이 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차심'이 오랜 기간 동안 성숙해졌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차심'처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 보다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㉔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드러낸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차심'에 대해 처음에는 '물이끼'라고 생각했다가 차심이 생겨나는 과정인 ㉔를 통해 '물이끼'가 아닌 것을 알게 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뜨

거운 찻물'이 '잔금'에 파고들어 가 그릇 색이 바뀌는 '차심'이 뭍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㉔에서는 이러한 '차심'이 지닌 새로운 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㉓ 화자는 ㉔와 ㉔를 통해 '차심'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효과를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㉔에서 '차심'을 '차의 마음'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㉔의 고통을 다스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차의 마음'은 화자가 깨달은 새로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㉕ ㉕는 ㉔~㉔에 제시된 '차심'을 '너'와 갈라진 자신의 문제로 확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화자는 '차심'처럼 '너와 나'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즉 화자는 '너'와 갈라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관계 회복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4 이 글에서 '아픈 금'은 '너'와 갈라지게 되어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고통과 상처를 의미한다. '잔금'이 '뜨거운 찻물'로 인해 내적으로 성숙한 '차심'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가 '아픈 금'에 '찻물을 내리'려 하는 것은 '차심'처럼 '너'와의 관계가 보다 단단해지기 위해 삶의 고통과 상처를 담담히 수용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화자가 '너'와의 관계가 단단해지기 위해 삶의 상처와 고통을 '몸의 일부인 양' 여긴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픈 금'속으로 찻물을 내리는 것을 '너'를 잊기 위한 화자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투어 삶의 고통과 상처를 의미하는 '잔금'이 만들어지므로,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투는 것은 삶의 상처를 가져다 준 시련이라 할 수 있다. ② '갈라진 너와 나 사이'는 화자가 너와 갈라진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화자는 현재 삶의 고통과 상처를 지냈다고 할 수 있다. ④ 찻잔에 생긴 '잔금'에 '뜨거운 찻물'이 파고들어 가 찻잔의 색이 바뀌는데, 이는 '잔금'이 '차심'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화자는 '너'와 단단한 관계가 되고 내적으로 성숙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차심'처럼 '빛깔을 우'리기를 바라는 것은 갈라진 '너와 나'가 내적으로 성숙하여 단단한 관계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5 <보기>를 통해 상처가 벌어져 '향기로운 속살'이 드러나고, 갈라진 사이로 아무도 몰래 키웠던 '진한 단내'가 새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은 '매끈한 껍질' 안에 있던 향기로운 속살과 진한 단내를 외부로 드러내 주므로, 껍질 안에 숨겨져 있던 가치를 외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잔금'은 '뜨거운 찻물'로 인해 '차심'이 되므로 외부의 영향으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㉔은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② ㉔과 ㉔ 모두 대상에게 시련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㉔은 '뜨거운 찻물'로 인해 내적으로 성숙한 '차심'이 되므로, ㉔ 자체가 내적으로 성숙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다. ⑤ ㉔이 삶의 상처를 드러낸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상처의 원인이 내적 갈등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외부의 시련으로 인한 삶의 상처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뜨거운 찻물'은 '잔금'을 '차심'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잔금'의 가치를 변화하게 하는 존재이다.

21 면면함에 대하여

본문 246~25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이 글은 과거인 겨울과 현재인 봄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두 계절은 의미상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의 시선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08** 이 글에 쓰인 색채어는 '푸르른'과 '초록'으로, 두 시어는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대비를 이루지도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㉔ 2 ㉕ 3 ㉔ 4 ㉔ 5 ㉓ 6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 가야 한다.

1 겨울의 시련을 견뎌 내고 강인한 생명력을 회복한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 3연에서 '너'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청자는 화자가 설정한 대상으로, 작품 밖에 있는 독자를 지칭한다고 봐야 한다. ③ 5연에서 '사람들'이 시적 대상을 쳐다보는 것은 시련을 극복한 느티나무를 보며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일 뿐, 과거 회상이나 그리움의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④ 이 글에서 '느티나무'와 '사람들'은 유추적 관계로 볼 수 있으나, 서로 상반되거나 대조적인 요소를 나란히 배치하는 병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정적 현실이 나타나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 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의적 태도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⑤ 3연에서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이들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피폐해진 농촌을 떠난 것일 뿐 느티나무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다.

2 농촌이라는 배경이 나타나지만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시상의 전환은 4연의 '오늘은'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1연과 3연에서 '너 들어 보았니'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1~3연은 겨울(과거)을 배경으로, 4~5연은 봄(현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겨울의 상처가 오늘의 이파리, 초록의 광휘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절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연과 3연에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가 나타나 있다. ⑤ 5연에서 '뚱뚱뚱'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절망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3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는 느티나무가 '푸르른 울음'을 견디어 낸 후 '초록의 광휘'를 내뿜었다는 것으로, 느티나무의 생명력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를 농촌의 현실에 대응해 본다면 농촌 공동체 역시 시련을 견디어 낸 후 희망과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이나 <보기>에 공동체의 나눔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삭풍'은 겨울에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겨울을 건디는 느티나무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는 대상이다. 이는 농촌 공동체의 해체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은 이농으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다. ③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농촌에 남은 사람들이 시련을 이겨 내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에 해당한다. ⑤ 마을 사람들이 모를 내다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보며 자신들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음을 의미한다.

4 ㉠은 농촌을 지키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행위이다.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보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면면하게 삶을 이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은 도시의 삶에서는 맛볼 수 없는 쾌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삶을 이어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은 현실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행위로,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역시 참깨를 털며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삶의 지혜와는 관련이 없다. ② ㉠은 농촌 공동체가 해체된 현실 속에서 농촌에 남아 삶을 이어 가는 사람들의 행위이지만 이를 공동체가 해체된 사회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은 시골에서 참깨를 터는 행위일 뿐, 공동체의 해체와는 관련이 없다. ③ ㉠은 피폐해진 농촌 사회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은 도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에 신이 나 있을 뿐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은 현실의 삶을 이어 가기 위한 노동일 뿐, 세속적 욕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은 신이 나서 즐겁게 참깨를 터는 모습으로,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5 ㉠은 농촌과 농민의 삶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암담한 농촌 현실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청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느티나무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푸르른 울음’은 1연과 2연, 4연에 나온다. 그중 1, 2연의 ‘푸르른 울음’은 느티나무가 겨울을 보내며 겪는 고통을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으로 표현한 것이고, 4연은 봄을 맞이한 느티나무의 강한 생명력과 희망을 공감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은 시각적 심상을 통해 ‘삭풍’이 치는 겨울에 겪은 고난의 흔적을 ‘상처투성이’로 표현한 것이다. ④ ㉠은 고난을 극복한 느티나무의 생명력을 ‘초록’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⑤ 이 글은 겨울을 이겨 낸 느티나무의 생명력을 농촌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희망과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느티나무의 생명력은 농촌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으로 작용하며, 이를 청각적 심상인 ‘북소리’로 형상화하고 있다.

6 느티나무는 겨울의 고통을 이겨 낸 후 봄의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다. 느티나무의 모습이 농촌에 남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응된다고 할 때, 5연에서 ‘사람들’은 느티나무처럼 광휘를 내뿜을 날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인 ‘면면함에 대하여’는 시련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꾸준히 버티고 이겨 내도록 자신의 삶을 이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 며느리밥풀꽃

본문 252~25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뜻하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이나 글 등을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05 화자가 서 있는 ‘뜰’과 화자가 떠올리는 ‘송이섬’을 통해 공간이 변환된다고는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다고 할 수 없고, 화자의 정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 07 ‘갈까’라는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의문에 해당하지 설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 08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④ 4 ⑤ 5 ④ 6 ‘눈물’에 응축된 며느리의 ‘한’의 정서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 차원의 정서로 확대됨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1 이 글에서는 며느리밥풀꽃에 대한 설화를 통해 며느리가 지닌 삶의 한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 표현된 ‘우리’라는 시어로 보아, 며느리의 삶의 한은 ‘우리’네의 삶의 한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며느리의 삶의 한을 통해 민중들의 한 어린 삶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신분제 사회 때문에 며느리가 희생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이 글에서 며느리의 한스러운 삶을 통해 비극적인 현실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화자나 민중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며느리가 한스러운 삶을 지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며느리의 일생을 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3연의 ‘혀 빼물고’는 며느리밥풀꽃의 모양을 드러낸 것으로, 며느리밥풀꽃이 사람처럼 혀를 빼물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의인법을 사용하여 며느리밥풀꽃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는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나, 그 속에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햇빛’과 ‘그늘’이 대비적인 시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대비적 시어를 사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화자가 송이섬을 떠올리며 며느리밥풀꽃 설화를 드러내고 있지, 과거를 회상하지는 않고 있다. ⑤ 이 글의 2연에서는 명사로 행을 종결하고 있어서 단정적인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3 <보기>를 통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모진 매를 맞아 죽은 뒤 한이 맺혀 며느리밥풀꽃으로 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나 이 글을 통해 며느리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예감하였거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랐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울음도 지쳐 / 추스림 끝에 피는’은 며느리의 한이 승화되어 며느리밥풀

꽃으로 피어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다 하였으므로, '뵈으면 으스스지는 꽃'은 모진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서민들이 며느리밥풀꽃을 보고 자기 위안을 삼았다 하였으므로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 일으켜 세우는' 며느리밥풀꽃의 모습은 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며느리는 밥알 두 알을 시어머니 몰래 훔쳐먹다가 들켜서 모진 매를 맞아 죽게 된다. 이를 볼 때, '밥알 두 알'은 며느리가 죽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작 '밥알 두 알'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며느리의 비극적인 죽음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며느리밥풀꽃이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비극적으로 죽은 며느리의 한이 오늘날에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며느리의 한이 그만큼 깊고 컸다고 짐작할 수 있다.

4 화자는 뜰에 내려 '햇빛'이 좋아서 풀꽃들을 떠올리다가, 그중에서도 설움이 뻗물까지 녹아 흐른 꽃인 며느리밥풀꽃을 생각한다. 그리고 며느리밥풀꽃 설화를 언급하면서 며느리의 한이 오늘에 이를 정도로 매우 깊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③은 화자가 며느리밥풀꽃에 담겨 있는 며느리의 한스러운 삶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5 ④에서 화자는 '며느리밥풀꽃'이 지금도 그 바위섬에 '피었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④에 '며느리밥풀꽃'이 있다고 확신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 화자는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시지 모르겠기에'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당신'이 ⑥에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화자가 ④에 가 보고 싶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보기>에서 화자는 ⑥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⑥를 가 보고 싶은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⑥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당신'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③을 화자가 그리워하는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보기>에서 화자가 ⑥에 있을지 모르는 '당신'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화자가 아직 가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⑥에서 '당신'과 이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화자는 ⑥를 떠올리고 있지. 그곳에서 대상과 이별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⑤ ⑥는 한이 서려 있는 며느리밥풀꽃이 피어난 곳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⑥에 있을지 모르는 '당신'이 한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PART 4 | 고전 산문

01 포천이문

본문 260~26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정 공과 하 공은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다.
- 03**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 04** 두 인물이 갈등하고 있지 않다.
- 07** 서술자의 개입은 드러나지 않는다.
- 10** 하 공은 타고난 기질을 지닌 사람만 죽은 뒤에 이승의 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 12** 하 공은 너무나 알기 쉽다고 말하는데,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좋하다고 봄을 알 수 있다.
- 15** 정 공은 오삼계를 연합 세력으로 보고 있다.
- 17** 정 공은 하 공의 말을 수용하면서 화의를 고수하겠다고 한다.
- 18** 정 공은 나라의 법은 지극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② 4 ② 5 ⑤ 6 ④ 7 나라의 인재 등용을 권세가에서 노비를 가려 쓰는 일에 유추하여 말하고 있다.

- 1** 정 공이 묻고 하 공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저승에 대한 문답, 북별론에 대한 문답, 국정 폐단에 대한 문답이 이어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정 공과 하 공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 갈등하고 있지는 않다. ④ 혼령과 산 사람의 대화라는 비현실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인물이 영웅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⑤ 대화 상황만 전달하고 있을 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지는 않다.
- 2** “그러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소.”에서 하 공이 기회주의적·위선적으로 대의를 내세우는 것에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정 공은 하 공에게 수명 연장을 부탁하지 않았다. ② 하 공은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이승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④ 정 공은 나라의 법에는 근본적 문제가 없지만 법이 오래된 탓에 국정에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⑤ 정 공은 하 공의 말을 수용하여 화의를 고수하기로 한다.
- 3** “길흉은 너무도 알기 쉬우니 물을 것도 없소.”라는 말은,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흥함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어지는 말에서는, 북별론의 의도가 순수하다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의 상황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북별론의 의도 및 그에 따른 자신의 평가를 대조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북벌론의 근거를 제시한 후 그 깊이를 묻고 있다. ③ ‘~면’이라는 가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국내외의 상황을 분석·여측한 후, 이를 근거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정 공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천시’와 ‘지리’로 나누어 반박하고 있다. ⑤ 병자호란이라는 과거의 경험과 조선군의 현재 상황 및 오십세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비해 ‘인사’에서 열세임을 지적하고 있다.

4 [F]의 화자는 직분을 다하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를 등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보기>의 글쓴이는 신분에 따라 재능의 유무가 같리지 않으므로 신분을 차별하지 말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F]와 <보기>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 <보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5 정 공은 ㉠과 ‘힘을 합해 명나라 황실을 부흥하기로 맹세’하는 것이 ‘만전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하 공은 ㉡이 ‘임금의 은의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신한 뒤 스스로 제위를 옹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을 ‘실패할 수 없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정 공은 ㉠의 존재를 궁급해하지만 하 공은 저승의 일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두 사람 모두 ㉠의 존재 여부를 단정하고 있지 않다. ② 하 공은 ㉠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다. ③ 하 공은 ㉡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④ 하 공은 ㉡에 대해 진법은 장사진뿐이고 ‘용렬한 장수와 나약한 병사’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6 역사상 실존 인물들 간의 비현실적 가상 대화를 통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위험을 피하면서(①, ②, ③)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는(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실존 인물들 간의 가상 대화 상황일 뿐 실화는 아니다.

02 왕수재취득용녀설

본문 267~27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5** 구체적인 연대나 역사적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섬·용궁·구미호 등 비현실적·신화적 공간이 중심이 된다.
- 06** 문제 발생 이후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07** 왕수재는 활 솜씨뿐 아니라 희생을 감수할 만큼 용기 있는 인물이다. 왕수재가 활을 쏠 수 없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미호를 인간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윤리적 판단과 갈등 때문이다.
- 11** 뒷부분의 내용으로 볼 때 왕수재의 옷만 물에 뜬 것은 그를 섬에 남기려는 해신(또는 초월적 존재)의 뜻을 알 수 있다.
- 12** 왕수재는 노인의 비범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노인이 서해 용왕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한다.
- 16** 여우가 노인에게 반복해서 싸움을 건 이유는 왕수재가 노인을 돕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의 집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② ④ **3** ⑤ **4** 왕수재는 부인의 외모가 매우 아름다워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으며, 이를 요물이 아닌 사람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쏘 죽여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활을 쏠 수 없었다. **5** ④ **6** ③

1 상사는 바람과 파도가 없는데도 배가 사흘이나 나아가지 못하자 해신이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옳다고 여겨 제사를 지낸다. 이로 볼 때 상사는 배가 멈춘 상황을 초월적 존재(해신)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으로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뱃사람들은 배가 멈춘 상황에 대해 두려움에 떨었을 뿐, 일행 중에 해신을 돕는 조력자가 있다고 믿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찾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수재 본인이 신궁임을 언급하며 그에게 직접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④ 왕수재는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차마 활을 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뿐, 부인이 노인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⑤ 왕수재가 시험을 제안한 근거는 뱃사람들의 정성 부족이 아니라,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섞여 있어 해신이 길을 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 [B]에서 노인은 왕수재를 신궁이라 치켜세우며 그의 활 솜씨를 빌려 자신의 위기(구미호 퇴치)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왕수재는 자신의 신분적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B]에서 노인은 왕수재에게 사과하며 도움을 구하는 처지로, 신분적 우월함과는 거리가 멀다. ② [A]에서 왕수재는 자신의 죽음을, [B]에서 노인은 현재의 고난을 말할 뿐, 미래의 긍정적 결과를 확신하는 태도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왕수재가 운명을 언급한 것은 일행을 위한 자기희생의 근거일 뿐, 동정을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⑤ [B]에서 노인은 명령이 아닌 부탁의 어조를 사용하여 왕수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배가 멈춘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의 개입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왕수재는 시련의 공간인 섬으로 이끌리며 이후 사건이 전개되므로, 서사적 기능은 주인공을 시련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왕수재를 노인의 조력자로 삼기 위해 계획된 과정이므로 '불운한 운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② 왕수재의 '비범한 능력(신공)'을 활용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는 과정이지, 그의 도덕적 결함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③ 사건의 원인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해신의 개입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연의 힘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배가 멈춘 뒤 인물들에게 두려움은 나타나지만, 불신이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는 않는다. ⑤의 핵심 기능은 갈등 심화가 아니라 서사의 방향 전환에 있다.

5 ㉠은 구미호가 임금의 행차를 모방해 위세를 과시하며 인물을 현혹하는 장면이다. 왕수재가 그 화려함에 황홀해하며 마음이 격동된 점을 볼 때, ㉠은 요물의 본질을 감추는 장치이지 정체의 허구성을 직접 폭로하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반복되는 제사 행위는 인간의 노력으로 타개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절박함과 위기감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② 모든 옷과 왕수재 옷의 대비는, 왕수재가 일행과 이탈하여 초월적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서사적 전환점이 된다. ③ 인간계의 것과는 다른 청아한 음악 소리는 이질적 존재인 구미호의 등장을 감각적으로 예고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⑤ 바다 위를 평지처럼 걷는 초월적 행위는 노인이 용왕의 아들이라는 비범한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독자에게 각인시킨다.

6 ㉠에서 초월적 존재인 노인은 수장인 양패공의 꿈에 나타나 간접적으로 뜻을 전하는 반면, ㉡에서 왕수재는 섬에서 서해 용왕의 아들인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사연을 듣는다. 즉, ㉢에서는 소통 방식을 서로 반대로 설명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의 거타지와 ㉡의 왕수재 모두 '활쏘기'라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② ㉠에서는 서해의 신인 노인이, ㉡에서는 서해 용왕의 아들인 노인이 각각 주인공에게 조력을 요청하며, 그들을 위협하는 적대자가 공통적으로 '여우'로 설정되어 있다. ④ ㉠과 ㉡는 모두 중국으로 향하는 '사행'이라는 항해 목적이 같지만, ㉠은 기상 악화(안개와 풍랑)가 원인이고 ㉡는 해신의 인위적인 개입(바람과 파도가 없음)이 원인이다. ⑤ ㉠과 ㉡ 모두 사물을 물에 던져 배에서 떠날 인물을 가리고 있는데, ㉠은 '가리앉는 것'을, ㉡는 '홀로 떠오르는 것'을 남을 사람의 표식으로 삼아 그 판정의 원리가 서로 다르다.

03 서해무릉기

본문 275~28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인물의 행동과 사건 전개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는 등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다.
- 04 서해무릉은 풍광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우며 인심이 좋은 이상적 공간의 성격을 지니지만, 혼사 장애와 갈등이 지속되는 장소이므로 사회적 갈등이 배제된 공간은 아니다.
- 07 회화화나 풍자를 통해 갈등을 웃음으로 처리하기보다, 시련과 고난을 진지하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09 유생은 최 씨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여승으로 변장했을 뿐, 장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변장한 것이 아니다.
- 10 유생은 처음에 서해무릉을 은인이나 도사가 사는 곳으로 여기며 상황을 파악한다.
- 11 정 부인은 장군을 거부하는 최 씨의 마음이 한결같음을 확인하고 근심한다.
- 13 계선은 최 씨와 유생의 만남을 직접 기획·실행한 것이 아니라, 최 씨의 결심을 돕는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
- 15 최 씨는 꿈을 '헛된 일'로 여겨 망설이다가 다음 날 여승이 왔다는 계선의 말을 듣고 행동을 결심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3년간이나 잃어버린 배필인 최 씨를 찾아 다니던 유생에게 '서해무릉'은 최 씨를 다시 찾은 '소망 실현의 공간'이다. 또한 장군의 위협으로 인해 장원 밖에서 탄식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최 씨와 목소리로 교감하며 다시 만날 기약을 정하는 '애정 회복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1 서술자는 최 씨나 유생이 처한 상황에서 “~ 오죽하였겠는가?”,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오.”와 같이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거나 상황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 방식은 서사적 성격이 강하며, 인물의 위선을 비판하거나 말장난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풍자적 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갈등은 점진적으로 심화·해소되며, 극적인 반전이 서사의 핵심 장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인물이 꿈을 꾸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는 인물의 재회와 사건 전개의 계기로 기능할 뿐, 인물의 내적 갈등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⑤ 사건 전개는 비교적 연속적이며, 장면 전환의 속도나 빈도로 긴박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2 계선은 최 씨가 밖으로 나갈 결심을 하자 '크게 기뻐하며' 채비를 차리게 했고, '계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를 통해 계선이 최 씨를 유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안내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유생은 섬 사람들에게 자신을 '금산사 뒤 언저리에 있는 여승'이라고 소

개하며 정체를 숨겼다. ㉓ 최 씨는 유생이 고생한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며 가슴 아파했을 뿐, 유생의 변장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㉔ 정 부인은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㉕ 최 씨는 꿈속 부처의 지시를 믿고 밖으로 나왔으며, 하늘에 빌 때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고 목숨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

3 [A]에서 정 부인은 최 씨가 간혀 지내는 현실과 아들의 나이가 참을 근거로 최 씨에게 개가를 제시한다. 또한 [B]에서 부처는 유생의 정성에 감동하여 유생과 최 씨를 돕는 것임을 밝히고, 최 씨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구체적 행동을 제시한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정 부인은 최 씨의 신념이 변하지 않았음을 일기에 이를 겪으며 회유하는 것이다. [B]에는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A]는 말로 타이르는 회유에 가깝지, 물리적 폭력이나 제재를 예고하며 겁박하는 상황은 아니다. [B]는 제삼자의 의견이 아닌, 초월적 존재인 자신의 뜻과 유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③ [A]에서 정 부인은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내세우며 최 씨를 설득하고 있다. [B]에서 부처는 앞날을 예언하기보다 현재 유생이 와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치중한다. ④ [A]에서 정 부인은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B]에서 부처는 조력의 근거(정성)를 밝힐 뿐,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과시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4 꿈속에서 부처가 노승과 여승으로 모습을 바꾼 것은 유생과 최 씨의 재회를 돕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유생에 대한 최 씨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시험의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꿈속 노승의 예언(오시에 여승이 올 것임)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후에 최 씨는 꿈속 부처의 말을 확신하고 행동(유생이 와 있다는 밖으로 나감)하게 된다. ②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있던 유생과 최 씨가 만날 수 있도록, 초월적 공간인 '꿈'은 만남의 경로를 열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지성 감천(至誠感天)'의 논리를 활용하여, 신성한 존재가 인간의 삶에 갑자기 개입하는 상황에 도덕적 정당성과 필연성을 부여한다. ⑤ 유생의 생사조차 모르던 최 씨에게 유생이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여, 정절을 지키기만 하던 수동적 상황에서 재회를 꾀하는 능동적 상황으로 서사를 전환시킨다.

5 유생과 최 씨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목소리를 확인하는 장면은 재회의 계기가 마련된 단계일 뿐이다. 이후 유생과 최 씨가 도적의 근거지를 탈출하여 모든 장애를 완전히 극복해야 혼사가 완성되므로, 이 장면에서 모든 시련이 종결되어 혼사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남 주인공이 신부를 찾아다니며 시련을 겪는다고 하였으므로, 유생이 3년간 바다를 떠돌다 서해무릉에 닿는 과정은 혼사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의 여정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비현실적 존재의 개입이 고난 극복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꿈속 부처의 계시는 하늘의 도움을 통해 두 사람의 인연이 정당함을 보여 주는 장치로 볼 수 있다. ③ 최 씨를 차지하려는 장군의 어머니 정 부인이 개입하여 최 씨에게 개가를 강요하는 것은, 주인공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장애 요인에 해당한다. ④ 유생이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굴에 숨어 지내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삼자(장군)에 비해 주인공의 세력이 미약하고 불리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04 반씨전

본문 283~28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권력이 집안인 채영 가문과의 갈등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11**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설분하기를 피한 것에서 채 씨의 말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 14** 채 씨의 말을 들은 위진이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하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㉓ 3 ㉑ 4 ㉑ 5 ㉔ 6 ㉓: 동서, ㉔: 가문 7 일위 부인, 한 노인(신령) 8 황제는 위윤이 정렬하고 강직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으나, 채영의 권세가 막강하여 신하들이 아무도 변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황제는 위윤을 정사에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조정이 권세에 휘둘리는 현실이었음을 드러낸다.

1 시어머니 양 씨가 반 씨의 동서인 채 씨를 꾸짖고 친절으로 내치는 것으로 보아 만머느리인 반 씨와 두 동서의 갈등이 시어머니인 양 씨와 채 씨, 팽 씨의 고부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머느리 간의 갈등과 머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전통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② 채영의 말에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반 씨와 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령이나 죽은 양 부인이 등장하여 도움을 주는 것에서 전기 소설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 씨 모자는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로 친절으로 가기를 꺼려 하는 것이지, 친절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채 씨가 '반 씨가 삼 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위진이 채 씨의 말을 듣고 대로하여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한 흥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에서 알 수 있다.

3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을 이르니'는 채 씨가 친절에서 자신이 내쳐진 이유를 말한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채 씨는 반 씨가 채 씨를 참소하였고 양 씨는 그 말을 믿고 죄가 없는 자신을 내쳤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의 발단은 반 씨와 채 씨의 동서 간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문호에 욕을 미치게' 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위윤과 반옥을 위해 나서서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악한 인물들이 권세를 이용하여 선한 인물들에게 시련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위진이 채 씨의 부추김에 따라 창두를 시켜 반 씨 모자를 해하게 하는 것은 선한 인물들을 극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반 씨 모자가 악인들에게 쫓겨 헤매는 상황에서 이들을 돕는 신령은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4 채 씨는 남편인 위진에게 반 씨가 삼 년이나 나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음일한 행사가 낱자하다고 말하며 반 씨를 처치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흥의 스승인 선관이 밤마다 찾아온 것임에도 사

실을 왜곡하여 말함으로써 반 씨를 처치하도록 위진을 부추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은 여막을 벗어나 산곡으로 들어간 반 씨 모자가 깊은 밤에 길을 잃은 데다 몸의 힘까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구사일생'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이다. ② '동상이몽'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⑤ '자승자박'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곤란하게 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6 반 씨와 채 씨, 멍 씨는 동서 사이이며, 이들이 연대하는 위윤, 반 옥과 채영 집안 간의 갈등이므로 가문 간 갈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7 '일위 부인'은 반 씨의 꿈에 나타나 위진이 보낸 창두에 의해 화를 입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 노인(신령)'은 반 씨 모자가 도적을 피해 산곡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기력이 쇠진하였을 때 이들을 구해 준다. 두 조력자의 도움으로 반 씨 모자는 목숨을 보전하여 친정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8 '계신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상고묵묵'하는 상황에서 황제 또한 권신의 세력을 의식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위윤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정의 불합리한 현실을 드러낸다.

05 현몽쌍룡기

본문 290 ~ 29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소저가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지는 않는다.
- 04 시녀들이 소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 10 용흥과 용창은 시녀들이 고백하기 전에 채임과 시녀들이 여자임을 먼저 알아차린다.
- 14 시녀들은 공자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 소저에게 아뢰고 자기 들끼리 의논을 한 후 소저의 정체를 알린다.
- 17 시녀들은 소저의 명령에 순응하는 대신 두 공자에게 진실을 알린다.
- 19 소저는 두 공자가 자신에 대해 모른다고 믿는다. 모르는 체한다고 여기지도, 그로 인해 섭섭함을 느끼지도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1 공자들과 정 소저 일행의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이 글은 작품 밖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② 남녀의 결연을 방해하는 '혼사 장애'를 그리고 있지만 여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③ 소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④ 시녀들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는 주인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 때문이다. 신분 질서의 혼란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2 "실상을 속이지 마라. 우리들은 절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우리는 서울로 ~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조 공자 형제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즉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소저의 뜻을 먼저 확인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 주인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공자의 외양을 고려하여 그들의 인물됨이 선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춘영과 벽란이 '현학적(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상대의 정체를 먼저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태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④ 소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신들끼리 상의하는 것으로, 소저에 대해 애정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공자를 믿고 일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 공자를 기만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4 정 소저가 후실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가출한 것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혼사와 관련하여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인물의 소극적·방어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혼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정 소저의 말을 통해 그녀가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라는 시비들의 말을 통해 소저의 고난이 친정 식구, 즉 계모와 부친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라는 정 소저의 말과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시비들의 말을 통해 정 소저가 부친의 허물을 감추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따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두 공자가 시비들의 말을 듣고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라고 여긴 것을 통해 정 소저가 당대에 요구되던 여성의 덕목, 즉 절개를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정 참정이 외가 몰래 정 소저를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려 하는 것은 정 소저도 알고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정 소저가 이 사정을 모르고’라는 진술은 물론, 이로 인해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을 구한 사람이 정혼자임을 알면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는 정 소저의 행동을 통해, 정 소저가 집안의 허물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시비들이 공자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정 소저에게 숨기으로써 정 소저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므로, 독자들은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③ 공자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정 소저가 알게 되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독자들은 이를 상상하며 작품에 집중할 수 있다. ④ 절간에 의탁하려는 정 소저의 계획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 소저와 두 공자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독자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06 대관재몽유록

본문 298~30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직접 체험한 일을 서술하고 있으며, 사건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상황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 07 고귀한 혈통을 지닌 영웅이나 고난을 극복하는 사건은 드러나지 않는다.
- 09 ‘나’는 자신에게 청탁하는 사람과 교류하지 않으며 청렴하게 살아간다.
- 12 ‘나’는 한림 선생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다가 꿈에서 깨어난다.
- 14 잠에서 깬 ‘나’의 배가 복처럼 부풀어 올랐으나, 이를 보며 안도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① 3 ② 4 ⑤ 5 ③ 6 꿈속에서 이색이 먹물을 들어부은 결과로 꿈 밖에서 ‘나’의 배가 복처럼 부풀어 올랐다.

1 ‘나’는 청렴하고 검소하게 행동했음에도 사사로운 욕심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고향에 돌아가라는 천자의 명을 따르며 하직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무예를 쓰지 않고, 휘파람을 불어 난을 진압한다. ② 김시습은 ‘나’에게 투항하였으나, ‘나’를 돕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심정승은 사단의 중간층에 이르렀으나 다리가 떨려 시종하지 못한다. ⑤ ‘나’는 탄핵을 당한 후 집안 식구와 이별할 생각에 차마 고향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

2 ②는 ‘나’가 김시습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한 뒤에 김시습이 한 말로, 김시습이 ‘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은 드러나지만,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오랑캐의 기병을 물리친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으며 천자가 ‘나’의 능력을 인정한 말이다. ③ ‘나’는 공과 사를 구분하여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④ 두 천자의 처지와 비교하여 재능이 있는 신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⑤ 이색이 재회를 약속하며 ‘나’를 위로하는 말이다.

3 ‘나’는 반적들을 진압한 공을 인정받아 안동백에 봉해졌으며, 향소문을 올린 공적을 인정받아 영경연사로 특진되었으므로,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난새와 봉황은 상상의 동물로, 이러한 동물들이 날고 있는 광경은 환상적 배경에 해당한다. ③ 두보와 이백은 중국의 옛 인물로, 사단은 이들과 동시대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④ 싸움이 아닌 휘파람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환상적 사건에 해당한다. ⑤ 선녀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높은 단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통해 천자의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난다.

4 ①과 ②에 대한 주위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가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된 것은 ‘나’의 청렴하고 검소한 태도를 주위에서 시기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②은 ‘나’가 이규보를 탄핵하는 항소이고, ③은 한림 선생이 ‘나’를 탄

행하는 상소이다. ㉔ '나'는 이규보의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음을 비판하고, 한림 선생은 '나'가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㉕, ㉖ 천지는 ㉗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㉘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라고 명한다.

5 조물이 '나'를 꺼린다고 한 것은 조물이 꺼릴 정도로 '나'의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작가가 자신의 문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두보를 대당 천자로 설정한 것은 두보의 문장에 대한 작가의 존경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보기>에서 이규보의 문장은 자유롭고 활달하다고 평가받지만, 이 글에서 이규보는 탄핵을 당한다. 이는 기존의 평가를 반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김시습은 자유로운 시풍을 보이거나, 이 글에서는 난을 일으킨 적장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는 김시습의 문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작가인 심의는 문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으며, 이 글에서는 김시습의 난을 진압하고, 이규보를 탄핵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보다 작가인 '나'의 문장력이 더 뛰어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꿈속 세상에서 이색이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 먹물을 들어부은 결과로 꿈 밖 세상에서 '나'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으로, 이는 꿈속 세상과 꿈 밖 세상을 연결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07 금방울전

본문 305~31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 05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8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 12 황후는 공주의 말을 듣고 금령의 신통한 재주를 치하한다. 그러나 금령에게 큰 상을 내리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5 어사의 꿈에서 백발노인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사를 질책할 뿐 사또가 어사의 아버지임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 17 사또는 어사에게 족자가 금령이 물어 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㉔ 2 ㉕ 3 ㉖ 4 ㉗ 5 ㉘ 6 ㉙ 7 족자는 조력자로서 금령을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또와 어사가 부자지간임을 알게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 해룡이 금령의 도움으로 요괴를 물리쳐 공주와 혼인하고 이후 아버지를 찾게 되는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지는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거나 갈등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요괴가 공주를 납치하거나 꿈속에서 선인이 미래를 예언하는 등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건들이 나타나 있다. ② 신통하고 비상한 재주를 지닌 금령이 해룡을 도와 공주를 구하는 여성 영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③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뉘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뉘 아니 이상히 여기리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부자지간임을 알게 된 어사와 사또가 통곡하는 모습과 사연을 알게 된 고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⑤ 신이한 능력을 지닌 금령이 해룡을 도와 요괴를 물리쳐 공주를 구하고, 족자를 통해 사또와 어사가 부자지간임을 알게 하는 등 금령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2 해룡이 공주와 혼인하기로 한 후 어림군을 관리하고 국사를 살피는 동안 혼인날이 다다랐다는 시간의 경과를, 서술자의 요약적 서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해룡은 부정적 인물이 아니며 그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② 해룡이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는 등 인물의 내면 심리는 나타나 있으나 배경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중략> 이전에는 황후와 천지가 금령과 해룡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중략> 이후에는 가족을 찾게 된 사또와 어사가 감격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⑤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해 있다.

3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 해룡이 요괴 잡던 일의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를 통해,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은 것은 금령이 아니라 공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금령의 시련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지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색이라.”라는 사또의 말을 통해 금령이 허물인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한 모습이 ‘만고에 드문 절색’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금령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이는 방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황후는 방울의 모습을 한 금령을 하늘이 낸 ‘신령스런 물건’이라고 하였다. ④ 해룡은 금령의 도움으로 요괴를 잡고 북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는 금령의 비범한 능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금령은 사또에게 족자를 물려다 주고 어사에게도 똑같은 족자를 주어 두 사람이 부자 관계라는 것을 밝힌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4 <보기>에는 공주 외에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반면 이 글에는 금령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러나 금령이 남자 주인공인 해룡을 두고 공주와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룡이 요괴 잡던 일의 전말을 낱낱이 고’하는 공주의 말을 통해 오히려 금령이 공주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해룡은 금령의 도움을, <보기>의 무사는 공주들과 산신령의 도움을 받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여자 주인공인 금령이 금방울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허물을 벗고, <보기>에서는 무사가 마귀의 집에 들어갈 때 수박으로 변신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부하들이 무사를 배신하여 무사가 지하국에 갇히게 된다. 반면 이 글에는 해룡의 부하들이 배신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는 산신령이 나타나지만 꿈속의 인물은 아니다. 반면 이 글에는 공주의 꿈속에 선인이 나타나 미래를 예언하거나 해룡의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사또가 아버지임을 암시하는 등 꿈속의 인물들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 꿈속에서 선인이 해룡이 요괴를 잡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주가 탈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 해설 ① 선인은 ‘금일 오시’에 해룡이 와서 요괴를 잡고 같이 부황과 모후를 만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해룡이 전쟁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해룡이 고귀한 신분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속세의 연분을 이루’라는 것은 해룡과 공주의 앞으로의 인연을 예고하는 것이다. ⑤ 공주의 꿈속에 선인이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하는 것은, 공주가 하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6 천자가 해룡의 공을 치하하면서 그것을 값을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지 아니함.’이라는 ‘각골난망’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③ 자나 깨나 잊지 못함. ④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08 **적벽가**

본문 312~31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영웅들의 활약상보다는 민중의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
- 05 배경 묘사가 보이기는 하지만 부정적 미래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 06 ‘네 신체가 개가환향할는지, 소가환향할는지.’에서 언어유희가 나타나지만, 이는 판단을 망설이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 13 조조는 까마귀 울음소리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 14 조조는 교만한 흥취를 떨치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이다.
- 16 화병은 다른 병사들의 놀림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 17 화병은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은 조조의 무관심을 원망하고 있다.
- 19 마지막 군사는 험걸찬 군사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② 4 ③ 5 ④ 6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 7 상대를 열등한 존재로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있다.

1 ‘조조는 사기를 진작코자 큰 잔치를 여는데’에서 조조가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잔치를 벌였음을 알 수 있지만, 뒷부분에 제시된 군사들의 대화를 보면 다수의 군사들은 오히려 조조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조의 군사들은 왜소한 화병을 보고 웃지만 동정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며, 화병도 이에 대해 반발하지 않는다. ② 조조의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조조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조조가 공활한 풍경을 보며 호기를 느끼는 것은 맞지만 주위의 장수들이 두려움을 느끼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주위의 장수들은 호기를 느끼는 조조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④ 조조 주위의 장수들은 조조를 호위하며 위세를 부리고 조조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2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었다는 화병의 말은, 부하의 사정에 무관심한 채 교만한 허세만 부리는 조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조가 부하의 까치(까마귀)를 가로챌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조조는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을 전쟁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리고 가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의명분을 표면에 내세우지만(①) 이면에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선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②) 평가할 수 있다. ③ “내 속의 흥을 네까짓 게 감히 깨느냐!”라고 말하며 창으로 유복을 찌르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도자인 조조에 대해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고 ‘교만뿐’이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한 기운을 잔뜩 내’어 부르고, ‘내 속의 흥’

이라고 말하는 점 등으로 보아 조조는 ‘노래’를 자신의 흥취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①).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러한 조조의 현실 인식이나 정서와는 달리 인생무상과 고독, 애상 등의 정서를 담고 있다. 조조가 자신의 흥취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노래를 이용했을 뿐 노래의 내용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조의 애상적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③, ④ 조조는 노래를 자신의 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는데 유목이 그 노래의 의미가 불길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③) 조조가 유목을 잔인하게 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④). ⑤ 까마귀를 소재로 다룬 조조의 노래에 대해 화병은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까치를 까마귀로 노래한 것이 화병이 불만을 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뺨골. 규방의 아낙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이라는 옛사람의 풍월을 인용하면서 전쟁에서 죽어 흔적도 없게 될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애고애고 설운지고.”)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달이 밝아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술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라는 구절의 의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오류를 바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까치와 헤어진 사연을 이야기하며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재회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④ ‘이 손들이 의젓하지 아니하네. 전쟁에 나온 놀이 고향 생각 어디가 쓰리.’라며 앞 사람들의 말을 비판하고 군사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조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군신유의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이라며 앞 사람의 태도를 칭찬하는 하지만 ‘침말로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감상적 태도에서 벗어나 잔치를 즐길 것을 권유한 것은 아니다.

5 ④는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병은 부정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적 성격의 인물을 희화화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을) ~고’ 형식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술, 떡, 소’ 등을 열거하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이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서술 방식이다. ② 작중의 인물을 언급하며 ‘~의 거동 보소.’라고 서술하는 것은, 청자(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제를 전환하는 것으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③ 서술자의 목소리로 작중 상황에 대한 군사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⑤ ‘개가환향할는지, 소가환향할는지’에서 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판단을 유보하는 인물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09 **웅고집전**

본문 320~32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주인공인 웅고집은 이기적이고 사회 윤리를 무시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영웅적 인물이라 할 수 없다.
- 07** 송사에서 승리한 사람은 실용가가 아니라 허용가이다.
- 11** 실용가는 곤장을 맞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웅가가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였다.
- 13** 실용가가 도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사가 그가 있는 곳에 나타난 것이다.
- 16** 실용가의 부인이 실용가에게 사죄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④ 4 ⑤ 5 ④ 6 ② 7 접수시오, 접수시오, 이 술 한잔 접수시오 8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목소리를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으로, 허용가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1**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의 송사 장면과, 뒷부분의 실용가와 도승의 만남 장면에서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실용가와 똑같이 생긴 허용가가 등장하거나 도승이 준 부적을 통해 허용가가 허수아비가 되는 사건은 비현실적인 요소이다. ③ ‘개구리 해산하듯, 도야지 새끼 낳듯’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용가의 아내가 해산하는 장면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다. ⑤ 실용가는 이기적이고 사회 윤리를 무시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양인 심사 깊은 정에 좋은 마음 측량없다.’ 등과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도승이 실용가에게 준 ‘부적’이 실용가가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 ③ 실용가가 ‘술피 우는 저 두견은 나의 심회 아내어 ~ 슬프다’라고 하여 ‘두견’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슬픈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허용가 거동 보소. 득송(得訟)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하는 거동 참으로 제법일다.’ 등과 같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허용가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다.
- 3** 실용가의 아내가 허용가의 정체를 눈치챘으나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허용가와 사이에서 많은 자식을 낳은 것과 후에 실용가가 왔을 때 한편 반가워한 것으로 보아 허용가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사또는 허용가를 향해 ‘참 웅 좌수’라고 판결하고 실용가에게는 곤장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② 허용가는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와 같이 사또의 공을 치켜세우고 있다. ③ 실용가는 곤장을 맞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웅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 ⑤ ‘돌아가 개과천선하라’라는 도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허수아비’는 실용가를 집에서 쫓겨나는 위기에 처하게 하는 반면

‘부적’은 그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허수아비’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부적’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허수아비’가 실용가의 부인의 꿈에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허용가와 그의 자식들로 등장하므로 꿈에만 등장하는 소재는 아니다. ④ ‘허수아비’는 실용가를 깨우치기 위한 소재라고 볼 수 있지만, ‘부적’이 실용가를 시험하기 위한 소재는 아니다.

5 ㉠은 실용가의 부인이 쫓겨났던 실용가가 다시 찾아와 문전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실용가를 보고 놀라 집안으로 내달으며 허용가에게 한 말이다. ‘면중복배’는 ‘겉으로는 복중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한다’는 뜻이므로 실용가 부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인과응보(因果應報): 선(善)을 행하면 선(善)의 결과가, 악(惡)을 행하면 악(惡)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름.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③ 대오각성(大悟覺醒): 어떤 사실을 크게 깨달아 앎. ⑤ 자괴자심(自愧之心):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6 실용가가 “인제도 옹가라 하겠느냐?”라는 사또의 질문에 “예, 옹가 아니요,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대답한 것은 ‘만일 옹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대답한 것이다. 이를 자신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0 옥단춘전

본문 328~33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04** 외양 묘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성격 변화와는 무관하다.
- 05** 이혈룡이 옥단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08** 현실적인 사건이 현실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 09** 이혈룡은 ‘옥단춘의 경제적 지원이 넉넉함. → 졸부가 되었다고 소문이 남. → 빚을 갚느라 다시 곤궁해짐. → 과거에 응시하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 13** 김진희는 이혈룡을 대우하거나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들여 벌을 준다.
- 14** 옥단춘은 초월적 존재에게 빌기는 하지만 초월적 존재의 구원을 장담하거나 이혈룡을 다독이지는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⑤ 4 ① 5 ③ 6 ② 7 ③은 서사의 흐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⑥는 상황을 반전시킨다.

1 이혈룡과 옥단춘이 죽을 상황에 처해 위기감과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어사출두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랑하는 두 남녀 이혈룡과 옥단춘은 갈등하고 있지 않다. ② 현실적 사건이 어사출두라는 현실적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③ 부정적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은 김진희인데, 그의 행동을 희화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④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허구이다.

2 초라한 차림으로 연회장에 등장한 이혈룡은 “네 이놈 김진희야, 나 이혈룡을 모른단 말이나?”라고 호통을 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한편 김진희의 신의 없음을 폭로하고 있다. 김진희를 응징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혈룡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비루한 척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제 ‘과오’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추궁을 염려한 것도 아니다. ② 옥단춘은 이혈룡의 사연을 사실로 믿고 그를 위로한다. ③ 김진희는 바로 명령하여 이혈룡을 포박하고 이혈룡과 옥단춘을 죽이려 한다. 별도의 계략을 쓰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⑤ 옥단춘은 자신이 자결할 테니 이혈룡을 살려 달라고 말하지만 이 말의 대상은 김진희가 아니라 사공이다.

3 ㉠은 상대의 사랑과 신의를 인정하면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연대를 선언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신분 차이를 한계로 인식하거나 한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사또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②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연회 참석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이혈룡의 양해를 구한 것이다. ③ 양반들이 내세우는 유교 윤리, 즉 봉우유신이나 결의형제가 자신의 경우와 같은 실제에서는 지켜지지 않음을 비판·조소한 것이다. ④ 자연물인 대동강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죽음이 대동강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

여 표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혈룡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다.

- 4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하리까.’는 인생은 원래 고통화복의 변화가 많으니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인 ‘새옹지마’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③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④ 헛되고 덧없음. ⑤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 5 ㉔는 수청을 들리는 어사또(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정절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충암절벽 높은 바위’, 눈이 와도 변하지 않는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㉔는 죄 없음을 호소하면서 살려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B]에는 무고한 죽음을 은폐한다고 평가할 만한 대상이 없다. ② ㉔는 죄가 없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③ ㉔, ㉕ 모두 자신이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남군을 지목하기도, 그를 원망하고 있기도 않다. ⑤ ㉔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 6 이혈룡은 악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혈룡의 위기를 권선징악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신의를 저버리고 이혈룡을 죽이려는 김 감사는 부도덕한 사대부라고 할 수 있다. ③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혈룡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옥단춘은 신의 있는 모습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옥단춘의 재물만으로 호의 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옥단춘이 상당한 경제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암행어사 출두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김 감사의 시도가 저지된다는 점에서 암행어사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김순부전

본문 336~34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전(傳)’은 초기에는 실존 인물의 기록이었으나, 점차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소설적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 10 정양빈이 김순부에게 진상을 따져 물은 것은 공을 세우기 위해서이지, 반란 모의의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다.
- 12 청음사를 지은 것은 한 종인으로, 안동 사람들은 이를 철거하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③ 4 ④ 5 ① 6 김순부는 김씨 집안사람들이 군청에서 모인 목적은 친족 간의 신의를 이야기하고 화목함을 다지기 위해서이며, 해마다 모임을 한 번씩 해 왔고, 사람이 많고 넓은 군청 앞마당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란을 모의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설득력 있게 항변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신문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 1 ‘전’은 특정 인물의 생애를 출생부터 죽음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전기적 형식의 소설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극적 갈등이나 반전보다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김순부라는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다. ② 김순부가 무고 사건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③ 김순부와 정양빈과의 송사 사건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④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한 김순부의 삶을 통해 당시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2 김씨 집안사람들이 신문에 응하다가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총명하고 영민한 김순부를 대표로 내세워 신문에 응하게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김순부는 서인 세력에 대항한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③ 김순부가 김씨 집안사람들을 대신하여 관청의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려 한 것이 아니라, 김씨 집안사람들의 요청으로 관청의 신문에 응한 것이다. ④ 가족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은 김씨 집안사람들이며, 모임을 주도한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한 사람은 정양빈이다. 김순부는 김씨 집안사람들의 모임이 죄가 된다는 정양빈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⑤ 친족 간의 신의를 이야기하고 화목함을 다지는 모임을 주도한 것은 김씨 집안사람들(영남에 사는 종인들)이다.

- 3 김순부는 당파 싸움에 얽힌 부당한 권력과 갈등하다가 마침내 천연두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는 사회적 재앙과 자연적 재앙이 중첩되는 구성을 통해 인물의 비극적 결말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오답 해설 ① 무고 사건에 연루된 김순부가 관청의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송사 사건의 전말이 나타나고 있다. ② 정양빈과 김순부의 갈등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 문학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대화체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사 문학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⑤ 무죄를 주장하는 김순부와 달리 사실을 왜곡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은 당시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주체 간의 투쟁을 보여 주고 있다.

- 4 김순부를 풀어 준 것에 대해 정양빈에게 성을 냈던 종인이 안동부 서쪽에 청음사를 지은 것은 김상헌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동에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노려 치려는 의도였다.

오답 해설 ① 정양빈은 반란군에 붙었다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을 세우려 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김씨 집안의 순수한 모임을 반란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정의 명이 있었다. ③ 신문에 응하다가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따를 것이므로, 김씨 집안사람들은 가장 믿을 만한 김순부에게 이를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아전이 찬탄했던 이유는 김순부가 불러주는 조서 내용이 논리적이고 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5 ㉠에는 지부가 김순부의 마음을 돌려 자신들의 편으로 회유하기 위한 의도가 드러나 있으며, ㉡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김순부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에 살아날 방도를 일러 주려는 마음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김순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에서 김순부가 살아날 방도를 찾고 볼 수 없다. ㉢ ㉠에 뜻있는 선비들이 모두 뜻밖의 재앙을 만난 현실에 대한 절망은 드러나지 않으며, ㉡에는 죄가 없음에도 살아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상황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 있다. ㉣ ㉠에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김순부에 대한 안타까움은 드러나지 않으며, ㉡에서 김순부는 살 방도를 찾고 있지 않다. ㉤ ㉠에 남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은 드러나지 않다.